

# 蘇聯의 東아시아 政策의 展開過程과 韓半島

—蘇聯對外政策의 國內的 源泉과의 聯關에서—

金 學 俊  
(서울大學校 社會大 教授)

## <目 次>

I. 序 論	5. 「아스파투리안」의 見解
1. 問題의 提起	6. 「플로스」의 見解
2. 問題에 的 接近方法	7. 小綜合
3. 本稿의 構成	II. 蘇聯外交政策의 國내적 源泉
1. 「짐머만」의 見解	1. 「헌트」의 見解
2. 「울람」의 見解	2. 「풀트」의 見解
3. 「달린」의 見解	3. 「샤프」의 見解
4. 「암스트롱」의 見解	4. 「다니엘즈」의 見解
	5. 「햄머」의 見解

## I. 序 論

### 1. 問題의 提起

蘇聯은 아마도 世界의 거의 모든 나라들에게 그들 外交에 있어서 가장 주요한 對象國家들 가운데 하나로 꼽힐 것이다.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듯이, 蘇聯은 美國과 더불어 世界의 兩大 超核強國으로서 人類의 戰爭과 平和의 運命에 직접적인 影響을 미칠 수 있는 位置에 있다. 정치적・經濟적・軍事적・외교적으로 막강한 影響力を 행사하고 있는 蘇聯과의 關係改善 또는 關係惡化는 相對國家에게 직접적인 또는 간접적인 「報償과 懲罰」의 冒險을 안겨주는 것이다.

韓國에게도 蘇聯은 분명히 외교적으로 가장 重視되어야 할 對象國家의 하나이다. 그 理由는 自明하다. 그러나 整理의 便宜를 위해 최소한 다음의 몇

가지를 지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첫째, 韓半島와 接境한 蘇聯은 韓國安保에 직접적인 影響을 미칠 수 있는 位置에 있다. 이 點은 역사적 事實에서 명백해진다.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에 帝政러시아는 韓半島에 대한 支配權을 놓고 日本과 競爭 및 戰爭을 벌인 바 있다. 또한 日本의 敗亡과 더불어 1945년 8월 美國과 함께 韓半島를 분할하였고, 더 나아가 1950년 6월에는 韓國戰爭의 背後幫助者로서 관여하였다 것이다<sup>1)</sup>. 그뿐 아니다. 1950년 10월 中共軍의 參戰과 1951년 6월 韓國休戰協商의 開始의 背後에는 蘇聯의 作用이 주요하게 개입되어 있었다.

1960년대와 1970년대에 있어서도 韓半島의 戰爭과 平和의 問題에 대한 蘇聯의 影響은 결코 작지 않았다. 할 權威있는 分析에 따르면, 이 時期에 蘇聯은 北韓의 對南武力挑發計劃이나 對南好戰路線에 憲재적인 役割을 하였다. 가령 1969년 4월 北韓이 美海軍 偵察機 EC-121을 격추시켰을 때 蘇聯은 北韓의 이 行爲에 대한 不滿의 뜻을 명백히 했던 것이다<sup>2)</sup>. 또한 1975년 南ベ트남의 赤化에 고무된 金日成이 對南武力路線을 강화하기 위해 蘇聯의 支援을 얻고자 모스크바를 방문하려 했을 때 蘇聯은 이를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sup>3)</sup>.

최근 東北아시아에는 이른바 3對 1의 國際體制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말해지고 있다. 美國과 中共 및 日本을 一方으로 하고 蘇聯을 他方으로 하는 國際體制가 그것이다. 이와 더불어, 蘇聯이 反蘇的인 美・中・日의 3角協調體制 또는 3角準同盟을 깨뜨리기 위해 北韓과의 군사적 紐帶를 강화하고 對南武力挑發의 길을 선택할 可能性도 배제할 수 없다는 主張이 나오고 있다<sup>4)</sup>. 蘇聯이 과연 이 길을 걸을 것인가는 疑問이다. 그러나 이러한 主張

1) 韓國戰爭에 있어서 蘇聯의 役割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하라. Hak-Joon Kim, "The Origins of the Korean War: A Survey of the Conflicting Literature from the Korean Perspective," paper presented at the Association for Asian Studies 31st Annual Convention held in April 1, 1979 at Los Angeles.

2) 이 事件직후인 1969년 5월 平壤을 방문한 당시 蘇聯의 聯邦最高소비에트幹部會議議長 N.V. Podgorny는 平壤에서의 공개적인 演說을 통해 『우리는 極東에 있어서 緊張의 緩和와 이 地域에 있어서 平和와 安全을 단호하게 옹호한다』고 말했다. 여기서 「緊張의 緩和」란 바로 金日成의 緊張造成에 반대한다는 含意를 갖고 있다. 실제로 蘇聯은 EC-121機의 生存者를 찾는 美國의 努力を 公開적으로 도와 주었다.

3) 이 점에 대해서는 다음을 보라. Jae-Eun Lee, "South-North Dialogue: A North Korean Peace Offensive?," *Journal of Korean Affairs*, Vol. V, No. 2 (July 1975), pp. 49-50.

4) 李相禹, "美 中共・日本의 3角協力體制와 韓半島", 『新東亞』, 1979年 3月號, p. 96.

은 蘇聯이 過去와 마찬가지로 未來에 있어서 여전히 韓國安保에 중요한 影響을 미칠 것임을 말해주는 한 예인 것이다.

둘째, 蘇聯은 韓半島의 統一에 상당한 影響을 미칠 수 있는 位置에 있다. 이 點 역시 역사적 事實에서 명백하다. 韓半島의 分斷을 해소하고 統一을 이룩하기 위해 解放이후 여러차례 열렸던 일련의 國際會談, 가령 美蘇共同委員會, 제네바會談, 그리고 유엔의 韓國問題討議에 있어서 蘇聯의 役割은 사실상 韓半島의 統一에 대해 否定的인 것이었다.

1970년대에 들어와 南北對話가 시작된 이후에 있어서도 蘇聯이 과연 韓半島의 統一에 기여하는 役割을 수행할 것인가는 疑問이 아닐 수 없다. 蘇聯은 韓半島에 있어서의 統一論議가 蘇聯에게는 「惡夢」일 獨逸의 統一論議를 자극하게 될 것을 두려워했다는 觀察<sup>5)</sup>, 또는 韓半島가 통일되어 강력한 자주적 民族主義國家로 등장하거나 다른 強大國의 影響아래 놓이는 것보다는 차라리 오늘날의 現狀이 불편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을 것이라는 觀察<sup>6)</sup>, 또는 金日成의 무력의존적 統一試圖가 결과적으로 美國과 南韓으로부터의 報復을 가져오고 이것이 결국 蘇聯이 개입되어야 할 事態로 발전해 나갈 展望에 대한 두려움에서 金을 경계하고 있다는 觀察<sup>7)</sup>등은 모두 蘇聯이 韓半島의 統一을 원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일치하고 있는 것이다.

蘇聯이 韓半島의 統一을 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韓半島의 統一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은 물론 아니다. 반대로 蘇聯이 韩半島의 統一을 지원한다고 하여 韩半島의 統一이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다. 韩半島의 統一問題에는 韩半島의 內的 및 外的 變數들이 무수히 개입되어 있어서 어느 한 變數가 풀린다고 하여 그 問題가 쉽게 풀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蘇聯의 韩半島政策은 韩半島 統一問題의 주요한 外的 變數임에 틀림없는 것이다.

세째, 蘇聯은 韓國外交에 중대한 影響을 미칠 수 있는 位置에 있다. 韓國이 유엔에 가입할 수 없었던 주요한 要因이 蘇聯의 拒否權行使에 있었던 점은 이를 말해주는 것이다. 만일 韓國과 蘇聯사이에 外交關係가 열린다면,

5) 韓昇助, “蘇聯의 對韓半島政策：蘇聯의 外交政策의 決定要因과 對韓半島政策代案을 中心으로”, 高麗大亞細亞問題研究所 세미나 論文(1974年 7月), p.29.

6) Ibid.

7) Morton Abramowitz, “Moving the Glacier: The Two Koreas and the Powers,” *Adelphi Papers*, No. 80, London: The International Institute for Strategic Studies, 1971, p.10.

韓國外交는 보다 더 큰活力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東歐와의 外交關係도 거의 自動적으로 뒤따라질 것이다며, 南北韓關係에도 상당한 질적 變化가 일어날 것이다.

확실히 蘇聯을 비롯한 共產圈은 韓國外交의 「死角地帶」라고 할 것이다. 이 「死角地帶」를 둘파하느냐 둘파하지 못하느냐에 따라 韓國外交의 幅은 결정되는 것이라고 보겠다.

네째, 蘇聯은 경제적인 側面에서도 우리나라에 대단히 중요해질 나라이다.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듯이 蘇聯은 풍부한 自然資源을 갖고 있다. 또한 蘇聯은 시베리아처럼 대대적인 開發을 기다리는 資源의 實庫를 갖고 있다. 또한 沿海와 經濟水域에는 풍부한 水產資源을 갖고 있다.

만일 韓國이 蘇聯과 여러 形態의 經濟協力を 이룩해 나간다면 그것은 무엇보다 韓國經濟의 새로운活力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資源導入의 주요한源泉이 될 수 있으며 勞動力進出의 좋은 市場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좋은 商品市場이 될 수 있을 것이다.

蘇聯은 이처럼 우리나라에게 여러가지 側面에서 대단히 중요한 나라이다. 따라서 蘇聯에 접근하여 궁극적으로는 外交關係의樹立을 유도하지 않으면 안된다. 蘇聯과의 공식적 關係樹立은 1980年代 韓國外交의 當面課題인 것이다.

그런데 當面課題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蘇聯의 韓半島政策을 연구하는 作業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蘇聯의 韓半島政策은 蘇聯의 東北아시아政策에 종속되어 있는 것이다. 蘇聯이 東北아시아政策과 분리된 단독적인 韓半島政策을 갖고 있다고 보기는 대단히 어렵다.

本稿가 蘇聯의 東北아시아政策을 살피려는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다. 本稿는 기본적으로 蘇聯의 東北아시아政策의 큰 틀 속에서 蘇聯의 韩半島政策을 살피려는 하나의 試圖이다.

## 2. 問題에의 接近方法

다른 나라 外交에 대한 分析과 마찬가지로, 蘇聯外交에 대한 分析도 크게 보아 2개의 次元에서 이뤄질 수 있을 것이다. 첫째, 巨視分析이다. 이 分析은 간단히 말해 國際政治의 큰 틀 속에서 個別國家의 對外行態를 살피며 따라서 한 個別國家의 國內的 特性이 그 個別國家의 對外行態에 미치는 影響

은 거의 무시된다. 이 巨視分析의 特性은 「짐머만」(William Zimmerman)에 의해 다음과 같이 정리된 바 있다.

[이] 分析方法은 國家를 人格化한다. 즉 國家를 그의 行態가 대체로 (a) 國제적 政府가 없는 國際舞臺에 있어서 무정부적 성격의 政治에 대한 反應이고 (b) 國際體制의 構造에 있어서의 變化(例: 주요한 行爲者들, 即 強大國들의 數에 있어서의 變化, 주요 行爲者들 사이에 있어서의 힘의 配分에 있어서의 變化, 또는 國際舞臺에 있어서 주요 行爲者들을 「작은」 行爲者("bit" players)들로부터 분리시켜주는 상대적 힘의 差異에 있어서의 變化)에 대한 反應, 또는 (c) 競爭國家들의 계산된 움직임들에 대한 反應으로 설명되는 하나의 단일한 합리적 決定作成者로 보는 것이다<sup>8)</sup>.

이 巨視分析에 의해 蘇聯外交를 살핀 1960年代의 대표적 著述로 「호렐릭」(Arnold Horelick)과 「러쉬」(Myron Rush)가 함께 쓴 『전략적인 힘과 蘇聯의 外交政策』(*Strategic Power and Soviet Foreign Policy*)<sup>9)</sup>을 지적할 수 있다. 이 책은 기본적으로 세계적 힘의 配分(global distribution of power)에 대한 蘇聯의 민감한 反應이라는 次元에서 蘇聯外交의 本質을 다루고 있는 것이다. 共著者들이 美國의 전략적 優位가 蘇聯이 「정치적 目標들을 위해 전략적 힘의 위험한 探擇」에 기울지 않도록 만들어 준 대외적 環境을 제공했다고 주장했을 때, 그들은 분명히 巨視analysis의 次元에 있는 것이다<sup>10)</sup>.

巨視analysis의 次元에서 蘇聯外交를 설명한 그밖의 學者로서 「감소프」(Raymond Garthoff)와 「술만」(Marshall Shulman) 및 「트리스카」(Jan Triska)—「핀리」(David Finley)등을 지적할 수 있다. 이들은 모두 蘇聯이 對外政策을 수립함에 있어서 力量均衡의 概念을 中心概念으로 설정하고 있음을 전제하고 있었다. 특히 「술만」은 蘇聯外交政策의 「반응적 본질」(reactive nature), 즉 美國의 行動에 대한 反應으로서의 對外行動의 性格을 강조했는데, 이 점은 「트리스카」—「핀리」가 제시한 「蘇·美相互作用의 刺戟—反應모델」(stimulus-response model of Soviet-American interaction)에서 보다 더 깊이

8) William Zimmerman, "Elite Perspectives and the Explanation of Soviet Foreign Policy," in Erik P. Hoffmann and Frederick J. Fleron, Jr. (ed.), *The Conduct of Soviet Foreign Policy* (Chicago: Aldine Publishing Co., 1971), p. 18.

9) Arnold Horelick and Myron Rush, *Strategic Power and Soviet Foreign Policy*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66).

10) 이러한 評價는 「짐머만」의 前揭論文에 나타나고 있다. Zimmerman, "Elite Perspectives," p. 19.

설명되었다<sup>11)</sup>.

巨視分析은 蘇聯의 對外行態 전반 뿐만 아니라 蘇聯의 對外行態의 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 軍事政策을 설명함에 있어서도 활용되고 있다. 즉 蘇聯의 軍事政策의 決定過程을 美·蘇간의 行動—反應모델(action-reaction model)로 설명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sup>12)</sup>.

물론 「겔래거」(Matthew P. Gallagher)와 「스필만」(Karl F. Spielmann, Jr.)이 지적했듯이, 이 모델은 대단히 기계적인 모델이다. 즉 경쟁하는 양쪽의 움직임(moves)과 對應움직임(countermoves)에 있어서 상당한 정도의 自動性(automaticism)과 精密性(precision)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다<sup>13)</sup>. 그러나 이 모델이 蘇聯의 對外軍事政策에 관한 美國人의 思考에 결정적인 影響을 미친 것이 사실이다. 지난 수십년간 蘇聯의 對外軍事政策에 관해 글을 쓴 사람들은 거의 예외없이 이 모델을 해석적 道具로 사용했던 것이다<sup>14)</sup>.

둘째, 微視分析이다. 微視分析은 기본적으로 한 國家의 外交政策의 特質을 國內政治過程의 結果로서 보는 것인데, 比較政治와 地域研究에 우선적인 關心을 둘린 政治學者들이 주로 이 方法에 기울어지고 있다<sup>15)</sup>.

微視分析은, 바꿔 말하자면 한 國家의 對外政策을 그 國家의 國內政治 또는 國내적 源泉과 연결지어 본다는 점에서, 이른바 連繫政治(linkage politics) 分析<sup>16)</sup>과 같은 性格의 것이라고 하겠다. 확실히 微視分析者나 連

11) *Ibid.* 「침미만」이 지적하고 있는 그들의 著述은 다음과 같다. Marshall D. Schulman, *Stalin's Foreign Policy Reappraised*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1963); Jan Triska and David Finley, "Soviet-American Relations: A Multiple Symmetry Model," *The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IX, No. 1 (March, 1965), pp. 37-53.

12) 이 모델의 內容은 아마도 1967년 9월 18일 샌프란시스코에서 행한 당시 美國防長官「맥나마라」(Robert McNamara)의 다음과 같은 演說에 잘 나타나 있을 것이다:『그들의 [=蘇聯의] 意圖가 무엇이든 간에, 우리의 意圖가 무엇이든 간에, 核力의 增強에 관련된 어느 한쪽의 行動—또는 현실적으로 잠재적인 行動 조차—반드시 다른 한쪽의 反應을 불러 일으킨다. 軍備競爭을 부채질하는 것은 바로 이 行動—反應의 現象이다』 Matthew P. Gallagher and Karl F. Spielmann, Jr., *Soviet Decision-Making for Defense: A Critique of U.S. Perspectives on the Arms Race* (New York: Praeger Publishers, 1972), p. 5에서 再引用.

13) *Ibid.*

14) *Ibid.*

15) Zimmerman, "Elite Perspectives," p. 18.

16) James N. Rosenau, "Introduction," in James N. Rosenau (ed.), *Domestic Sources of Foreign Policy* (New York: Free Press, 1967), p. 2; James N. Rosenau, *The Scientific Study of Foreign Policy* (New York: Free Press, 1971), ch. xi.

繫分析者 모두에게 對外政策의 「國內構造」<sup>17)</sup>는 아마도 가장 중요한 分析의 對象인 것이다.

微視分析 또는 連繫分析은 그 發想은 대단히 매력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分析方法이 제기하는 딜레마는, 이미 「로즈노」(James N. Rosenau)가 적절히 지적했듯이, 『국내적 源泉과 그의 結果로서의 行爲, 즉 外交政策 사이의 連繫는 쉽게 관찰되어지지 않으며, 따라서 一貫性있는 分析에 특히 저항적』이라는 데 있다<sup>18)</sup> 확실히 어떤 国내적 要因들이 어떤 時期에 어떤 條件아래서 어떤 種類의 影響을 미쳤는가를 따져보기란 대단히 어려운 일이다.

이 어려움은 微視分析 또는 連繫分析을 蘇聯의 外交政策 分析에 적용하려 할 때 더욱 날카롭게 나타난다. 「호프만」(Erik P. Hoffmann)과 「플레론」(Frederick J. Fleron, Jr.)이 지적하고 있듯이, 蘇聯 外交政策의 国내적 要因, 특히 政策決定過程의 要因들에 대한 情報와 資料는 지극히 제한되어 있는 形便이다. 예컨대, 蘇聯 政治指導者들의 計算과 그리고 그들이 政策을 결정할 때 그들이 갖고 있던 情報를 평가하기란 극도로 어려운 것이다. 그리고 여러 代案 가운데서의 그들의 최종적 選擇 또는 妥協에 있어서 어떤 要因들이 결정적이 있는가를 판정하는 것 역시 극도로 어려운 것이다. 分析者의 情報源은 거의 언제나 몇개 안되는 文書에 제한되어 있을 뿐인데, 여기로부터 몇개의 推論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다<sup>19)</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蘇聯의 對外政策을 분석한 學者들이 대부분 微視分析의 立場을 취했다는 것은 흥미있는 일이다. 「집미만」이 지적하고 있듯이, 『西方에서 蘇聯外交政策을 說明함에 있어서 우세한 定向은 微視分析의인 것 이었다』<sup>20)</sup>.

蘇聯外交의 源泉을 이처럼 国내적 要因에서 찾으려는 傾向이 우세한 理由는 무엇일까? 解答은 간단하다. 蘇聯의 外交政策은 實際에 있어서 다른 나라들의 外交政策과 다르며, 또한 蘇聯外交의 政策・目標・手段에 있어서의

17) Henry Kissinger, "Domestic Structure and Foreign Policy," in James N. Rosenau (ed.), *International Politics and Foreign Policy* (New York: Free Press, 1969), pp. 261-275.

18) Rosenau, "Introduction," p. 2.

19) Erik P. Hoffmann and Frederic J. Fleron, Jr., "Introduction to Part II," in Hoffmann and Fleron, *The Conduct of Soviet Foreign Policy*, p. 32.

20) Zimmerman, "Elite Perspectives," p. 19.

獨特性은 1917년의 블셰비키革命이 가져온 「러시아」政體와 「러시아」社會의 급격한 變形에서 그 原因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sup>21)</sup>.

그러면 微視分析의 立場에서 蘇聯外交의 分析을 시도한 사람들은 누구였는가? 우선 「케난」(George Kennan)을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는 1947年의 그 유명한 論文「蘇聯行動의 源泉」("Sources of Soviet Conduct")<sup>22)</sup>에서 蘇聯의 政治指導者들이 共產統治의 國내적 權力基盤을 굳히기 위해 外部「帝國主義」勢力의 蘇聯에 대한 威脅을 강조했다고 주장했던 것이다. 그는 또한 蘇聯外交의 秘密性・率直性의 결여・二重性 등을 蘇聯의 「내부적 本質」, 예컨대 蘇聯政權의 도덕적 雾圍氣의 所產으로 보았던 것이다. 「터커」(Robert C. Tucker)도 蘇聯外交를 「케난」적인 概念으로 분석했다. 즉 그는 蘇聯의 國內政治와 그리고 蘇聯의 政治指導者들의 個性이 미치는 影響에 焦點을 두고 蘇聯의 外交政策을 설명고자 했던 것이다<sup>23)</sup>.

두사람 외에도 많은 사람들을 지적할 수 있다. 「암스트롱」(John A. Armstrong), 「플로스」(Sidney I. Ploss)등이 그 例들이다.

微視分析의 方法이 蘇聯外交分析에 있어서主流라 하여 이에 대한 批判이 없다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巨視analysis을 택하고 있는 「술만」이 그 批判의 대표적 사람이다. 그는 「터커」式의 分析을 『특정한 蘇聯指導者들의 수수께끼와 같고 불분명한 特性 또는 心理를 강조』하는 解釋方式은 회피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그는 또한 「크레믈린에서의 헛소리들」(the shenanigans in the Kremlin)에 지나지 않는 内部權力政治의 角度에서 蘇聯對外政策의 源泉을 살피는 것은 회피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sup>24)</sup>.

그러나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대부분의 蘇聯外交 專門家들은 微視分析方法에 기울어지고 있다. 本稿가 이 接近方法을 택한 理由도 여기에 있다.

### 3. 本稿의 構成

21) *Ibid.*, pp. 19-20.

22) 이 論文은 원래 *Foreign Affairs*, July 1947에 발표되었다. 그의 *American Diplomacy, 1900~1950* (Chicago, 1952), pp. 107-128에 재수록되어 있다.

23) Robert C. Tucker, *The Soviet Political Mind: Studies in Stalinism and Post-Stalin Change* (New York: Frederick A. Praeger, 1963), *passim*.

24) Marshall D. Schulman, "Some Implications of Changes in Soviet Policy toward the West: 1949~1952," *Slavic Review*, XX, No. 4 (December 1961), pp. 630-640. 「술만」의 見解와 비슷한 입장의 論文으로 다음이 있다. Bernhard J. Bechhoefer, "The Soviet Attitude toward Disarmament," *Current History*, No. 266 (October, 1963), pp. 193-199.

本稿는 우선 微視分析의 입장에서 蘇聯外交를 다루고 있는 學者들이 중요하게 간주하고 있는 国内적 源泉들을 정리·소개한다. 즉 蘇聯外交政策의 決定過程에 影響을 미치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는 国内적 要因들을 먼저 살피기로 한다.

그 다음 蘇聯外交政策의 決定過程에 直接적·간접적으로 影響을 미치는 것으로 보이는 機關들과 利益集團들을 살피기로 한다. 黨과 政府의 여러 다양한 機關들 및 軍·產關係의 利益團體들이 주로 分析의 對象이 될 것이다.

그 다음 蘇聯의 「아시아」政策, 특히 東北「아시아」政策을 살피기로 한다. 앞에서 밝힌 바와 같이, 蘇聯의 国内적 源泉 또는 国内적 構造가 어떻게 蘇聯의 「아시아」政策에 작용하고 있는가에 強調點을 두어 살피기로 한다. 그러나 巨視analysis이 중시하는 國際政治의 影響도 우리의 分析에서 배제하지는 않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蘇聯의 韓半島政策을 다루기로 한다. 역시 微視analysis의 方法에 強調點을 두고자 하겠으나, 우선 시인되어야 할 점은 그러한 努力은 資料와 情報의 貧困으로 큰 成果를 거두기 어렵다는 것이다. 따라서 巨視analysis의 方法도 함께 사용하고자 한다.

## II. 蘇聯 外交政策의 国内적 源泉

蘇聯 外交政策의 形成過程에 影響을 미치고 있는 国内적 源泉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見解와 說明이 있어 왔다. 따라서 우리는 먼저 그 見解와 說明에 대해 개별적으로 살피기로 한다.

### 1. 「집머만」의 見解<sup>25)</sup>

「집머만」이 반드시 国内적 要因의 分析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는 国内적 要因의 分析과 國제적 分析을 똑같이 중시한다. 그에 따르면, 蘇聯外交政策을 분석함에 있어서 가장 중시해야 할 점은 政策決定者의 認識과 態度 및 眺望인데, 国内적 要因과 國제적 要因이 모두 그것에 影響을 주고 있다는 것이다.

政策決定者의 認識과 態度 및 眺望을 중시한다는 점에서 「집머만」은 기본적으로 微視analysis의 立場을 취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

25) Zimmerman, "Elite Perspectives," pp. 18-30.

가 國際環境에 있어서의 變化가 많은 지도적 蘇聯公職者들의 態度와 眺望을 중대하게 变경시키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이것이 지도적 蘇聯公職者들로 하여금 外部로부터의 影響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能力を 증대시키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볼 때, 그는 巨視分析의 立場을 의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을 念頭에 두면서, 「집마만」이 보는 한 나라 外交政策의 國내적 要因을 살펴기로 한다.

첫째, 非人的 要因(nonhuman factors)이다. 여기에는 그 國家의 지정학적 位置 또는 自然資源 등이 포함된다.

둘째, 國내적 社會力(domestic societal forces)이다. 여기에는 그 國家의 民族性, 政治文化, 信念體系 또는 이데올로기, 社會構造 등이 포함된다.

세째, 國家의 有效構造(effective structure of a state)를 형성하는 要因이다. 여기에는 한편으로는 國家의 공식적인 憲法의 틀로부터 다른 한편으로는 한 國家 内部에서의 情報流通에 대한 구조적 影響에 이르기까지의 要因들이 포함된다.

네째, 특정한 政策決定者들의 개별적 特性(idiosyncracies of particular decision-makers)이다. 여기에는 특정한 政策決定者들의 認識과 热望 및 愛慮 등이 포함된다.

요약컨대, 「집마만」에 의하면, 微視分析은 「한 國家의 상황적으로 유인된 일반적 傾向(situationally induced general propensities of a state)이 아니라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한 政體의 개별적 構成要素들의 本質」(nature of the individual components of a polity)을 한 國家의 外交政策의 올바른 理解를 위한 가장 중요한 要素로 보는 것이다.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따져 보기로 하자. 蘇聯外交政策의 國내적 源泉을 따진 著述들을 두루 살펴본 「집마만」은 그 源泉을 다음의 셋으로 정리했다.

첫째, 蘇聯外交의 源泉을 「러시아」의 歷史에서 찾는 傾向이다. 이른바 「繼續性과 變化」라는 角度에서 蘇聯外交를 설명하려는 努力이 여기에 속한다. 比較史的인 性格의 이 分析方法은 帝政리시아의in 要素가 오늘날의 蘇聯外交에 지속되어 있는가의 與否에 焦點을 두고 있는 것이다.

둘째, 蘇聯外交의 源泉을 蘇聯의 政治이데올로기에서 찾는 傾向이다. 蘇聯의 政治이데올로기, 즉 마르크시즘과 레닌이즘은 資本主義社會의 打倒를

그 本質로 하고 있으며 또한 그 目的의 遂行을 위해 暴力を 사용할 수 있다 는 立場을 취하고 있다. 資本主義社會가 완전히 타도되었을 때, 진정한 世界平和가 온다고 믿는 그들로서 蘇聯의 對外膨脹은 당연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러한 믿음의 體系는, 法律的 實用主義의 立場의 美國의 政策樹立가 들이 葛藤보다는 安定을 規範으로 받아들이고 점진적 變化와 體制相互間의 影響—變化를 존중하는 믿음의 體系와는 현격히 다른 것인데, 蘇聯政治指導者들의 그 믿음의 體系가 바로 蘇聯外交政策의 形成過程에 있어서 中요한 國內적 要因이라는 것이다.

세째, 蘇聯外交의 源泉을 蘇聯政治體制의 特性에서 찾는 것이다. 蘇聯은 전형적인 전제주의적 獨裁體制의 나라이로서, 外交政策의 決定過程에 있어서 政黨 및 利益團體의 影響과 國內輿論의 影響을 받지 않을 수 밖에 없는 개방적이며 다원적인 西歐國家들과는 달리, 少數의 寡頭支配者들과 그 統制下의 少數의 官僚集團이 蘇聯外交를 좌우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蘇聯은 西歐와의 競爭에 있어서 보다 더 유리한 立場에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이 세가지 傾向 가운데 가장 우세한 傾向은 蘇聯의 政治 이데올로기를 중시하는 傾向이라고 「침미만」은 보았다. 그러나,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침미만」은 政治 이데올로기의 重要性이 특히 1950年代末 이후의 蘇聯外交에 있어서는 거의 없어졌다고 보았다. 그의 한 權威있는 分析<sup>26)</sup>에 따르면, 1950年代末과 1960年代初에 國際關係를 평가하는 蘇聯 政治指導層의 眺望에는 중대한 變化가 일어났다는 것이다. 美國의 對外政策이 「월」街에 의해 결정된다는 종래의 見解도 수정되었고, 美國의 資本主義에도 본질적인 變化가 일어나 政治體制와 經濟體制간의 關係를 변질시켰다는 점을 인정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또한 國際體制가 단일한 지배적 國家에 의해 영도되는 엄격하게 계층적인 構造를 갖고 있다는 見解를 수정하여, 이제는, 즉 「資本主義의 총체적 危機의 새로운 제3의 段階」인 오늘날에는 國際體制는 美國과 蘇聯이라는 2개의 超強大國에 의해 지배되고 있다는 現實을 인정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狀況 속에서 비록 경제적으로 「帝國主義」에 예속되었고 정치적으로 美國에 연결되어 있는 弱小國이라 해서 반드시 從屬國으로 간주될

26) *Soviet Perspectives on International Relations, 1956~1967*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69), pp.276-280.

필요가 없다고 이해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것은 蘇聯의 政治指導者들이 資本主義 陣營과 社會主義 陣營 내부의 2級 强大國의 증가되는 自己主張性을 정확히 이해하기 시작했음을 보여주는 것이었으며, 또한 世界의 戰爭과 平和의 問題가 단순히 資本主義 陣營의 指導者들과 社會主義 陣營의 指導者들 사이만의 問題가 아니라는 認識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집머만」은 보았던 것이다. 종합컨대, 「집머만」은 오늘날에 있어서는 蘇聯의 國際政治觀과 西歐의 國際政治觀에는 서로 수렴되는 뚜렷한 傾向이 있다고 본 것이다. 따라서 이제 革命적 이데올로기가 蘇聯의 外交政策 決定過程에 미치는 影響은 적다고 보았다.

## 2. 「울람」의 見解

「게티」(Charles Gati)는 1960年代에 출판된 蘇聯外交에 관한 대표적인著書로서 2권을 품았는데<sup>27)</sup>, 그 하나가 앞서 지적한 「트리스카」—「핀리」의 『蘇聯外交政策』이고 다른 하나가 「울람」(Adam B. Ulam)의 『膨脹과 共存』이다<sup>28)</sup>. 前者が 内容分析方法・決定作成理論・役割理論・Hong 및 競技理論 「多對稱」(multiple-symmetry) 모델・統計學 및 數學의 테크닉 등을 활용하여 蘇聯外交政策의 類型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특히 蘇聯의 政策決定過程을 분석하려고 했음에 비해, 後자는 전통적・ 역사적 接近方法을 취하고 있다. 물론 「울람」의 이 책은 역사적・직관적 接近方法이 갖고 있는 일차적 制約點, 즉 「게티」가 명명한 「知覺의 相對性」(perceptive relativity)<sup>29)</sup>의 問題를 안고 있다. 동일한 現象을 觀察者의 眺望에 따라 해석하는 問題가 그것이다. 그러나 이 책은 볼셰비키革命 이후의 蘇聯外交를 가장 포괄적으로 철저히 다룬 뛰어난 책임에 틀림없다.

이 책에서 「울람」이 중시한 国内적 源泉은 크게 보아 두가지였다. 첫째가 「過去의 遺產」이었고 둘째가 마르크시즘이었다.

첫째, 「過去의 遺產」; 「울람」은 帝政 「러시아」가 「피터」大帝(Peter the

27) Charles Gati, "History, Social Science, and the Study of Soviet Foreign Policy," in Hoffmann and Fleron, *The Conduct of Soviet Foreign Policy*, p. 11.

28) Adam B. Ulam, *Expansion & Coexistence: The History of Soviet Foreign Policy, 1917~67* (New York: Frederick A. Praeger, 1968), ch.I.

29) Gati, "History, Social Science, and the Study of Soviet Foreign Policy," p. 12.

Great) 때 이르러 列強의 地位에 오른 이후 大「러시아」民族主義를 대외적으로 추구해 나감으로써 膨脹主義의 傾向을 키워 나왔다고 본다. 民族主義와 영토적 膨脹主義가 함께 어울린다는 것은 「유럽」의 대부분의 強大國 歷史에서 뚜렷한 傾向이지만, 그 結合은 「러시아」帝國主義의 端初에서 이미 두드러졌고 또 독특한 性格을 가졌다는 것이다.

그 점이 특히 大「러시아」族의 「역사적 使命」이란 概念에서 분명한 것이 있다고 「울람」은 지적한다. 帝政「러시아」이전의 「모스크바」大公國의 時代부터 大「러시아」族은 자신들을 카톨릭교와 이슬람교에 대항하는 東方基督教의 代表者이며 守護者라고 자부하였으며, 이의 구체적 表現을 「유럽」으로부터의 「티어키」의 逐出과 그리고 基督教世界를 위한 「콘스탄티노플」과 그 周邊海峽의 「奪還」에서 찾고자 하였다는 것이다.

「울람」은 이 張창주의적 民族主義 또는 민족주의적・종교주의적 膨脹主義의 傳統이 蘇聯外交政策에 影響을 주는 중요한 要因이라고 본다. 그에 따르면, 帝政「러시아」의 外交政策의 目標와 蘇聯의 그것 사이에는 繼續性이 있다는 것이다. 「캐서린」大帝(Catherine the Great)의 한 長官은 『成長을 멈춘 것은 씩기 시작한다』라고 말하며 「러시아」의 膨脹을 합리화한 바 있는데 만일 蘇聯의 政治家들이 보다 더 솔직했다면 그들도 분명히 그의 말을 되풀이했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울람」은 다음과 같이 썼다.

帝政「러시아」의 膨脹의 道具들과 合理化의 根據들——人種的 紛糾와 汎슬라브主義, 그리고 「러시아」正教 조차——은 모두 소비에트「러시아」의 外交政策의 武器庫 속에 그 자리를 찾고 있다. 1945년까지는 뜨아의 政府가 추구했으나 결코 달성하지 못했던目標들이 그들의 繼承者들에 의해 달성되었다. 東歐는 「러시아」의 완전한支配 아래 있다. 獨逸의 人種的 境界線은 中世의 地點으로 밀려났다. 공식적으로는 無神論을 지지하고 있으나, 「스탈린」의 政府는, 마치 「니콜라스」1세의 政府가 1830年代와 1840年代에 있어서 帝國의 西部 領土 안에서 그렇게 했듯이, 「러시아」正教敎會의 편에 서서 東「갈리시아」에서의 「그리스」 카톨릭의儀式을 탄압했고 그努力을 증대시켰던 것이다. 失地回復主義(irredentism)의 잠재적 源泉은 모든 「우크라이나」人們과 白「러시아」人们이 蘇聯에 포함되어 있을 때 제거되었다. 이러한事實들은 舊政權과 新政權 간의 강력한 繼續性의 證據로서 응변하고 있는 것이다<sup>30)</sup>.

둘째, 마르크시즘 ; (1) 「울람」은 마르크시즘이 우선 蘇聯의 民族解放戰爭의 外交路線과 「혁명적 忍耐」(revolutionary patience)主義로 연결되는 것으로

30) Ulam, *Expansion and Coexistence*, p. 12.

로 보았다. (i) 원래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民族主義를 중시하지 않았다. 經濟가 점차 世界化하면서 두개의 적대하는 階級들, 即 資本家 階級과 勞動者 階級의 利益 역시 國境을 초월할 것으로 보았다. 資本家 階級은 그들대로 전세계적 團結을 폐할 것이고, 勞動者 階級 역시 그들대로 전세계적인 團結을 도모할 것이어서, 勞動者와 資本家가 모두 「無祖國」의 狀態에 들어갈 것이라고 보았다. 그러나 그들은 革命運動과 民族解放運動에 종사하고 있는 後進國의 社會主義者들과 連繫를 갖고 있었고, 자연히 이들에 同情心을 갖게 되어 그들의 戰爭을 지원하게 되었다. 이 過程에서 그들은 그들의 戰爭이 비록 非社會主義의 民族主義의 性格을 갖고 있다고 해도 그것이 종국적으로 「유럽」反動勢力を 약화시키는 것이라면 받아들일 수 있다는 態度를 취하게 되었는데, 그 대표적인 例가 「폴랜드」民族主義運動에 대한 「마르크스」의 支持였다. 「폴랜드」民族主義運動은 「폴랜드」의 上流 및 中流階級이 주도한 것이었으나, 그것이 「유럽」反動勢力의 中樞인 「프리시아」와 「오스트리아」 및 「러시아」에 대항하는 것이기에 지원했던 것이다. 「울람」은 여기서 「民族解放戰爭」의 縱領이 「흐루시초프」(Nikita Khrushchev)의 發明이 아니라 『共產黨宣言』만큼 오래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ii) 같은 源泉에서 이른바 「혁명적 忍耐」主義가 나왔다고 「울람」은 본다. 革命運動의 戰略과 「이데올로기」가 분명히 「마르크시즘」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해도, 만일 그 運動이 어느 한 나라의 政治의 전통적 類型을 교란시키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이라면, 그 革命을 지지해야 한다는 立場이다.

(2) 「울람」은 볼셰비크 指導者들이 權力を 장악하기 이전에 가졌던 經驗이 蘇聯의 「對外問題에 있어서의 「마르크스」적 遺產의 두번째 部分」이라고 보고 있다. 볼셰비키는 「러시아」 마르크시스트 運動의 少數派로서 執權을 위해 「마르크스」가 革命勢力으로서는 부차적으로 보았던 農民을 끌어들여야 한다는 점에 눈을 떴고, 여기서 蘇聯外交는 後進國의 革命運動에 있어서 農民의 적극적 參與를 지지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또한 같은 理由에서 볼셰비키는 少數民族에 대한 또는 被壓迫民族에 대한 支援政策을 썼는데, 이것의 進化가 蘇聯外交政策의 주요한 部分을 형성한다고 보았다. 마지막으로, 볼셰비키는 그 戰爭過程에서 社會民主主義者들이나 또는 自由主義的 運動者が 冷澈한 現實感覺과 目的을 달성하기 위한 强忍함이 모자란다는 것을 깨달았으며, 이것이 蘇聯政府가 「모든 民主政權의 内적 힘 또는 眼睛의 目標

追求」에 대해 회의를 갖게 한 源泉이 되었다고 보았다.

(3) 울람은 볼셰비키가 배운 戰時의 敎訓이 蘇聯外交의 「마르크스」적 遺產의 한 部分이라고 보았다. 유럽의 社會主義 政黨들은 만일 世界大戰이 일어나면 이에 반대하기로 결의한 바 있다. 예컨대, 1907年에 「슈투트갈트」에서 열린 社會主義 인터내셔널大會의 決議가 그것이다. 그러나 1914년 제 1차 世界大戰이 일어났을 때, 「유럽」 社會主義運動의 總帥格인 獨逸 社會民主黨을 비롯한 各國의 社會黨들은 「祖國」을 앞세워 戰爭을 지지했던 것이다. 이것은 「레닌」을 포함한 볼셰비키 指導者들로 하여금 社會民主主義는 「가짜」 社會主義이며, 議會를 통해 社會改革을 시도한다는 社會民主主義의 路線이 아니라 革命과 暴力を 존중하는 볼셰비키 路線이 世界의 社會主義運動을 이끌어야 한다고 더욱 믿게 하였다.

그뿐 아니었다. 世界大戰은 완전히 그로 하여금 그의 生涯 처음으로 國際關係理論에 몰입하게 했다. 이제 「러시아」 社會主義運動의 運命은 「유럽」 革命과 世界革命의 運命에 달렸다고 본 그는 이를 위한 새로운 理論과 戰略을 마련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여기서 나온 것이 뒷날 蘇聯外交政策의 주요한 基礎의 하나가 된 帝國主義論(1916)이다.

여기서 우리는 그의 帝國主義 理論 전체를 살펴 볼 必要는 없다. 그것의 蘇聯外交政策과의 連繫性이란 側面에서 최소한 다음의 두가지를 지적함으로써 충분할 것이다. 첫째, 그는 先進工業國家가 海外의 植民地를 착취함으로써 國內의 계급적 葛藤을 둔화시키고 있다고 보고 先進Industrial國家에서의 階級革命을 촉진시키기 위해 海外 植民地에서의 解放鬪爭이 활발히 전개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둘째, 그는 海外 植民地, 곧 半Industrial國家 또는 非Industrial國家에는 「마르크스」가 革命의 主體로 본 工業 프롤레타리아트가 존재하지 않거나 대단히 약하므로, 「마르크스」가 레띠·브루조아지로 규정지는 農民에게 호소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보았다. 이 修正은 중요한 意味를 지닌다. 植民地의 解放鬪爭에서 만일 「유럽」의 帝國主義者들에 대항하기만 한다면 그것이 반동적인 社會階級일지라도 革命階級과 聯合을 이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蘇聯이 1920年代와 30年代에 後進國의 부르조아 政權과 손을 잡았던 것은 바로 이 路線에 따른 것이 있다고 「울람」은 보았다.

### 3. 「달린」의 見解<sup>31)</sup>

「달린」(Alexander Dallin)은 蘇聯의 外交政策과 國內政治를 보는 分析의 틀에 다음 다섯개의 變數가 연결되어 고려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첫째, (i) 政治文化에 있어서의 持續性과 (ii) 國內적 經驗 및 認識範疇의 國際舞台에로의 投影등과 같은 「둔한」(unwitting) 要素들이다. 前者は 國家機關이 강력하고 중심적인 權威를 갖는 「러시아」의 傳統이 오늘날에도 그대로 남아 있어서, 政治, 對外政策의 決定過程이 國家機關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後者は 蘇聯의 公職者들이 黨과 國家官僚制度 안에서 上級者와 下級者の 階序的 關係에만 젖어 있었기 때문에 相對方國家의 代表者들과 동등한 입장에서 交渉을 벌이는 問題에 상대적으로 익숙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둘째, 一般市民의 態度에 관한 政策樹立家들의 認識과 前提들이다. 가령 어떤 특정의 外交政策에 대해 一般市民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대한 政策樹立家들의 認識이다.

세째, 對外問題에 관한 「엘리트 사이의 分裂과 政策을 둘러싼 葛藤」이다. 이것은 다음의 세 가지를 포함한다. (i) 外交政策에 직접적으로 관련되고 官僚政治 또는 「은밀한 討論」속에 표현되는 政策紛爭과 差異, (ii) 對外問題은 아니지만 對外關係에 불가피한 意味를 갖는 問題에 있어서의 政策葛藤, (iii) 權力鬭爭과 派閥 등에 연유한 分裂 등이 그것이다.

「달린」은 蘇聯에 있어서 政策葛藤과 權力葛藤은 상당한 정도로 겹쳐있다고 보고 있다. 가령 1920年代에 있어서 「스탈린」(Joseph Stalin)과 「트로츠키」(Leon Trotsky)의 對決, 1946~48年에 있어서 「말렌코프」(Georgi Malenkov)와 「즈다노프」(Andrei Zhdanov) 사이의 鬭爭, 그리고 1955年에 있어서 「호루시초프」와 「몰로토프」(Vyacheslav Molotov) 사이의 鬭爭 등은 모두 國內外의 政策을 둘러싼 葛藤, 이념적 構成에 있어서의 差異, 權力鬭爭과 같은 要素들을 포함하고 있었다.

네째, 政策決定者의 서클 밖에 있는 個人들과 그룹들이 기본적인 決定이 내려지기에 앞서 자신들의 見解가 반영되도록 벌이는 努力이다. 「스탈린」

31) Alexander Dallin, "Soviet Foreign Policy and Domestic Politics: A Framework of Analysis," in Hoffmann and Fleron, *The Conduct of Soviet Foreign Policy*, pp. 36-49.

時代에는 이러한 努力이 실질적으로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러한 努力들이 확산되고 있으며 이것은 蘇聯의 國內政策 決定過程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對外政策 決定過程에 影響을 주는 주요한 要素가 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對外政策에 影響을 미치려고 하는 個人들과 그룹들에는 軍部와 科學者들이 포함된다. 그러나 이들이 政治定向에 있어서 반드시 동질적인 것은 아니다.

그밖에도 특히 最近에 이르러 對外問題를 포함한 广泛한 爭點들에 대해 抗議나 請願을 제기하는 意見그룹이 나타난 例도 있다. 蘇聯의 「체코슬라바키아」侵攻에 대한 抗議가 바로 그것이다.

다섯째, 美國 政治學의 概念을 빌어 표현한다면 「政治有關層」, 또는 「알몬드」(Gabriel Almond)의 表現을 빌린다면 「注意를 기울이는 公衆」("attentive public")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利益團體의 形成도 지금으로서는 初期段階에 있다고 밖에는 할 수 없는 狀況에서, 그러한 層의 影響이 대단하다고는 말할 수 없다. 그러나 앞으로 蘇聯의 政治體制가近代化를 계속 추진해 나간다면,近代化에 관한 一般理論이 제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政治有關層은 증대할 것이며, 따라서 이들의 影響力도 차차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달린」은 평가하는 것이다.

「달린」은 이 다섯개 範疇의 影響은 같지 않다고 보고 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는 外交政策決定에 相談을 받는 서클의 幅이 천천히나마 넓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같은 範疇에 속하고 있는 다양한 要素들 사이의 相互커뮤니케이션 및 相互作用과 다른 範疇에 속하고 있는 要素들 사이의 相互커뮤니케이션 및 相互作用 역시 증가하고 있다는 「증대한 傾向」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달린」은 이러한 傾向이 「후루시초프」時代에 가장 두드러졌다고 보았다. 이時代에는 國內問題와 外交問題 모두에 있어서 問題에 대한 接近方法을 놓고 民間指導者와 軍部指導者の 비공식적 聯合이 몇개씩 생겨났으며, 그 몇개의 聯合 사이에 對立이 있었음이 입증되었다는 것이다<sup>32)</sup>. 또한 政策樹

32) 「달린」은 이러한 分析을 다음의 책들에 의존하고 있다. Thomas W. Wolfe, *Soviet Strategy at the Crossroads*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64); Roman Kolkowicz, *The Soviet Military and the Communist Party*

立家라 할지라도 특정한 利益集團의 암묵적인 支持를 확보하기 위한 努力を 보인 例가 적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러한 傾向들을 지적한다고 하여 그것이 물론 최종적인 決定을 내릴 수 있는 權限이 통상적으로는 小數人에게 남아 있으며 그들은 또한 「外部의 意見」을 무시할 수 있다는 것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 그들은 가령 1962년 10월의 「쿠바」 미사일 危機時에는 자신들의 結果에 대해 형식적으로는 責任 져야 할 機關인 黨 中央委員會에 대해서도 最小의 關心을 보였을 뿐이 있다고 「달린」은 보았다.

그런데 「달린」은 蘇聯 對外政策의 國內적 源泉을 이해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蘇聯政治體制의 本質이 변화했다는 점에 대한 認識이라고 주장했다. 1917年の 블셰비키革命 이후 오늘날에 이르는 時間동안 蘇聯共產黨의 構造와 機能은 중대한 變化를 겪었으며, 이에 따라 對外政策의 國내적 源泉 역시 중요한 變化를 겪었음을 의미한다고 본 것이다<sup>33)</sup>. 즉 全面動員과 恐怖政治의 段階가 끝나면서 상대적으로 거의 아무런挑戰을 받지 않던 頂체주의적 政策決定過程의 「單純性」은 깨어져가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면서 政策決定過程은 점차 體制內의 다양한 要因들에 의해 影響을 받고 있다고 보았다. 이 점에 대해 「달린」은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蘇聯이 1970年代로 옮겨가면서, 蘇聯의 엘리트 内部에는 外部 世界에 대한 서로 다투는 認識과 像이 있고, 對外目標에 관한 서로 다투는 優先順位와 價值가 있으며, 서로 다투는 外交政策의 戰術・戰略의擁護者가 있다고 말하는 것은 誇張이 아닌 것이다<sup>34)</sup>.

#### 4. 「암스트롱」의 見解<sup>35)</sup>

「암스트롱」(John A. Armstrong)은 政治指導者 사이의 權力競爭을 蘇聯 對外政策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源泉으로 보았다. 그에 따르면, 外交政策의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67); Carl Linden, *Khrushchev and the Soviet Leadership* (Baltimore: Johns Hopkins Press, 1966).

33) 이 점에 대해서는 같은 趣旨의 다음 論文을 참조하라. Edward Morse, "The Transformation of Foreign Policies: Modernization, Interdependence, and Externalization," *World Politics*, XXII, 3 (April, 1970), pp. 371-392.

34) Dallin, "Soviet Foreign Policy," p. 44.

35) John A. Armstrong, "The Domestic Roots of Soviet Foreign Policy," in *ibid.*, pp. 50-60.

爭點들은 蘇聯 全體의 利益이라는 次元에서가 아니라 일차적으로는 黨 政治局의 개별적 委員들과 派閥의 利益이라는 次元에서 操作되는 傾向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그러한 점이 특히 「스탈린」時代부터 두드러졌다고 보았다. 「레닌」時代에는 그가 蘇聯의 政治를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政治 指導者간의 權力競爭이 外交政策의 遂行에 중대한 影響을 미치지 못했으나, 그의 死後에는 樣相이 크게 달라졌다는 것이다. 확고한 카리스마를 갖고 있던 「레닌」과는 달리, 「스탈린」은 자신의 權力基盤이 취약했기 때문에 權力의 維持와 擴大를 위해 주로 操作과 術數에 의존하는 傾向이 두드러졌는데, 이 過程에서 蘇聯의 外交政策目標은 「스탈린」의 利益에 예속되는 경우가 많았다고 그는 보았다. 그 가장 대표적인例로 「암스트롱」은 1948年「유고슬라비아」大統領「티토」(Josip Tito)와의 袋別을 지적하고 있다.

「스탈린」이 이처럼 자신의 개인적 目標를 위해 外交政策을 종속시킨 慣行은 蘇聯의 政治엘리트에게 그 慣行을 하나의 教訓으로 심어주었다. 이 점에 관해 「암스트롱」은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오늘날 소비에트體制의 歷史의 3분의 2는 「스탈린」의 그림자 아래서 경과되었다는 점이 쉽게 잊히고 있다. 오늘날의 엘리트에 있어서 모든 주요한 人物들(그리고 덜 중요한 엘리트들의 거의 모두)은 그들의 活動經歷의 대부분을 「스탈린」 밑에서 보냈다. 「스탈린」의 가르침의 影響, 더욱 중요하게는, 그의 示範의 影響은 이 그루우프가 집권하고 있는 한 지워지지 않을 것이다.<sup>36)</sup>

### 5. 「아스파투리안」의 見解<sup>37)</sup>

지루할만큼 긴 論文을 통해 蘇聯에 있어서 國內政治와 對外政策의 關係를 다각적인 側面에서 검토한 「아스파투리안」(Vernon V. Aspaturian)은 일차적으로 蘇聯의 對外政策이 國內政策의 延長이라고 보았다. 일반적으로 蘇聯의 「내부적 社會그루우프」(internal social groups)의 利害關係에 의해 對外政策이 영향받는다고 본 것이다. 여기서 그는 특히 『공격적 對外政策과 國際緊張의 維持로부터 利益을 얻는 것으로 보이는 蘇聯社會의 사회적・제도적 그루우프』로 ① 軍部 ② 重工業管理人 ③ 직업적 黨아파라치키와 이데올로

36) *Ibid.*, p.54.

37) Vernon V. Aspaturian, "Internal Politics and Foreign Policy in the Soviet System," in R. Barry Farrell (ed.), *Approaches to Comparative and International Politics* (Evanston: Northwestern University Press, 1966), pp. 212-287.

구의 셋을 지적했다. 이에 비해 『國際緊張의 緩和로부터 利益을 얻는 것으로 보이는 사회적 그루우프』로 ① 國家官僚 ② 輕工業 管理人과 消費財 管理人 및 農業管理人 ③ 文化 그루우프와 專門職業 그루우프 및 科學 그루우프 ④ 精神勤勞者 그루우프와 勞動階級 및 農民 등 蘇聯의 「消費者」의 네트을 지적했다. 이러한 視角에서 그는 다음과 같이 결론짓고 있다.

〔蘇聯의〕對外政策은, 國防問題를 포함하여, 추상적인 意味에 있어서의 國家利益 또는 民族利益보다는 支配 그루우프의 利益과의 函數關係에 있다.<sup>38)</sup>

「아스파투리안」은 蘇聯의 對外政策과 國내적 源泉과의 相互聯關係에 관한 또 다른 하나의 假說로서 蘇聯의 對外政策은, 國防問題를 포함하여 「추상적인 國제이념적 利益」보다는 「구체적인 國내적 利益」에 봉사하고 있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해, 『국내적 政策의 要求는 일반적으로 대외적 政策의 要求와 양립하기 어려운 경우 後者에 대해 優先權을 갖는다』는 것이다. 가령 國內經濟를 발전시키는 問題와 프로레타리아 國際主義의 原則에 따라 第3世界에서의 共產革命을 지원하는 問題사이에 葛藤이 발생하는 경우 蘇聯의 政治엘리트는 後者를 희생시키는 事例가 많았다고 보았다.

#### 6. 「플로스」의 見解<sup>39)</sup>

蘇聯 對外政策의 國내적 源泉에 관한 「플로스」(Sidney I. Ploss)의 分析은 우선 그 問題에 관한 「캐난」과 「무어」(Barrington Moore)의 立場에 대한 比較에서 시작된다. 앞에서 지적했듯이, 「캐난」은 蘇聯 對外政策이 國際體制의 影響보다 國內政治의 影響을 강하게 받고 있음을 주장했었다. 이에 대해 「무어」는 물론 소비에트體制의 권위주의적 本質이 蘇聯의 「공격적・팽창주의적 對外政策」의 源泉이라는 主張을 일단 받아들였다. 가령 蘇聯의 政治指導者들은 權力維持의 주요한 한 方便으로 「外部로부터의 攻擊可能性」을 강조했고, 이로 인해 조성된 危機意識은 실제로 「러시아」의 大衆으로 하여금 일련의 5개년계획을 밀고 나가게 하는 原動力이 되었다는 점을 인정한 것

38) *Ibid.*, p. 230.

39) Sidney I. Ploss, "Studying the Domestic Determinants of Soviet Foreign Policy," in Hoffmann and Fleron, *The Conduct of Soviet Foreign Policy*, pp. 76-90.

이다. 또한 「무어」는 蘇聯의 外交政策이 개별적 政治指導者들의 野心에 의해서도 影響을 받고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蘇聯이 1930年代에 있어서 나치즘의 危險性을 최종적으로 받아들이기까지에는 상당한 시간적 遲滯가 있었는데, 그 原因은 개별적 政治指導者들간의 競爭과 그리고 政治狀況에 대한 評價의 差異에 있었다고 「무어」는 본 것이다. 그런데 「무어」는 이처럼 蘇聯의 對外政策이 國내적 要因들에 의해 影響을 받고 있다는 점을 시인하면서도, 그것을 蘇聯의 對外政策決定過程에 관한 자신의 中心적立場으로 내세우지는 않았다. 그의 中心적立場은 蘇聯의 對外政策의 큰 뿌리와 줄기는 역시 國際政治에 있어서 힘의 配分에 있어서의 變化에 대한 反應이라는 점인 것이다<sup>40)</sup>. 즉 「무어」는 기본적으로 巨視分析의 立場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플로스」는 이 「무어」의 立場보다는 「캐난」의 立場이 훨씬 더 教示的이며豫見的인 價值를 제시하고 있다고 보았다. 「캐난」流의 分析方法은 蘇聯에 있어서 政策決定에 影響을 미치고 있는 思考의 傾向과 그 過程, 그리고 國內政治와 對外政策의 相互作用에 관해 보다 더 면밀하게 살펴보도록 注意를 환기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플로스」는, 「캐난」의 立場을 따르면서, 우선 蘇聯의 學者들이 모든 나라의, 그리고 특히 蘇聯의 對外政策의 決定過程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를 살펴보았다. 그 結果, 「플로스」는 「아르주마니안」(A.A. Arzumanyan)을 비롯한 蘇聯의 國際關係理論 분야의 學者들도 모든 나라의 國內政治와 對外政策은 상호연관되어 있으며 國내적 要因들이 對外政策에 큰 影響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음을 밝혀냈다. 그리고 蘇聯의 경우에 대해서는 ① 經濟 ② 政治 ③ 이데올로기 ④指導者들의 個性 ⑤ 偶然性(chance)의 다섯 가지를 蘇聯學者들이 지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으로 經濟가 지적되었다. 「레닌」은 『우리 國家의 대내외적 政策의 가장 깊은 뿌리들은 경제적 利益에 의해 定形된다』고 주장한 바 있는데, 이 主張이 蘇聯의 學者들에 의해 그대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蘇聯의 學者들은 蘇聯의 대내외적

40) 「플로스」가 分析의 對象으로 삼고 있는 「무어」는 책은 물론 *Soviet Politics: The Dilemma of Power: The Role of Ideas in Social Change*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50)이다.

政策이 『우리 國家의 지배적 階級의 經濟狀況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고 있다는 것이다. 이 점에 관해 「플로스」는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이것은 이른바 勞動者·農民의 支配階級의 이름으로 통치하고 있는 權力保有者들이 蘇聯의 大외적 併叢案보다는 内부적 建設의 課業과 그리고 조만간 蘇聯市民의 물질적 生活을 개선시켜줄 어떤 政策의 成就라는 課業에 優先順位를 주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의미하고 있는 것이다. 그 점은 1961년의 黨綱領으로부터도 추정될 수 있는 것인데, 이 綱領은 『蘇聯共產黨은 그의 對外政策活動의 主目標는 蘇聯에 있어서 共產社會의 建設과 그리고 世界社會主義制度의 發展을 위한 평화적 條件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한다』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다. 蘇聯에 있어서 對外政策이 優先하고 있다는 점은 최근의 다음의 글에 전달되고 있다: 共產黨의 對內政策의 中心적인 問題는 우리나라의 모든 勞動者들의 生活에 있어서 물질적·문화적 條件을 체계적으로 개선시키며 이를 위해 긴요한 경제적 先行條件를 만들어 냈는데 있다…물론 對內政策에 의해 설정된 課業의 성공적 達成을 위해서는, 共產主義를 건설하는 평화적 労動人民에게 유리한 國際環境의 保障이 긴요하다.』<sup>41)</sup>

經濟라는 要因 다음으로 蘇聯學者들이 중시한 國內政治라는 要因을 보기로 한다. 이 점에 대해서는 蘇聯學者들은 자세한 說明을 거의 않고 있다고 「플로스」는 분석했다. 하기야 蘇聯의 宣傳當局은 資本主義國家에 있어서만 國民의 内부적 統制를 유지하기 위한 政治의 機能이 중시되며 따라서 對外政策 역시 그러한 脈絡에서 설명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sup>42)</sup>. 또한 蘇聯에는 개인적 利益을 추구하는 私有의 軍需產業이란 존재하지 않으며 黨은 軍部를 완전히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西歐社會에서 흔히 있는 軍產複合體의 政府政策에의 影響力行使란 찾아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sup>43)</sup>. 그렇기 때문에 蘇聯의 學者들이 國內政治라는 要因에 대해 별로 言及을 않고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이다.

이데올로기라는 要因과 指導者들의 個性이라는 要因 및 偶然性이라는 要因에 대한 蘇聯學者들의 說明은 길지 않다. 이데올로기에 대해서는, 다만 오래된 思考의 慣行이 때때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하고 있을 뿐이다.

41) Ploss, "Studying the Domestic Determinants of Soviet Foreign Policy," p. 79.  
뒷 部分의 引用의 原典은 1966年 8月 10日字. 『프라우다』紙에 게재된 「스테파노프」(V. Stepanov)의 論說이다.

42) Iu. M. Borodai (ed.), *Marksizm-leninizm* (Moscow, 1965), p. 101. Ploss, "Studying the Domestic Determinants of Soviet Foreign Policy," p. 79에서 다시 인용함.

43) 「플로스」는 다음에서 인용하고 있다. Iu. Zhukov, *Pravda*, March 29, 1964.

또한 指導者들의 個性과 偶然性에 대해 서도, 그 兩者가 모두 歷史의 불가피한 進路를 중대하게 촉진시키거나 지체시킬 수 있다는 「마르크스」의 한 便紙(1871年)를 인용하고 있을 뿐이라고 「플로스」는 지적했다.

蘇聯의 國際關係理論 분야의 學者들은 이처럼 다섯개의 國내적 要因을 지적함과 동시에 외부적 要因의 重要性도 아울러 언급하였다. 한 나라에 대한 다른 나라의 侵略은 侵略을 당한 나라로 하여금 자신의 哲學과 統治方法에 연유하지 않은 몇가지 措處를 취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든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 國내政治와 對外政策의 連繫가 성립된다고 주장하면서, 그들은 이를 階級理論에 입각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즉, 階級關係는 國家의 水準에 제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전세계적인 水準으로 확대되어 있어서, 전세계적인 次元에 있어서의 支配階級인 帝國主義國家가 被支配階級인 弱小國家를 침략하는 경우 後者は 그에 대한 對應으로서의 대내외적 政策을 불가피하게 취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국제적 階級關係」 때문에 資本主義 國家制度는 全世界의 모든 國家의 對內外政策에 「결정적」인 것은 아니지만 「엄청난」影響을 주고 있다고 그들은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플로스」는 보았다.

蘇聯의 對外政策 決定過程에 관한 蘇聯의 國際關係theory 분야의 學者들의 說明은 결국 國내적 要因의 優位를 말해 주는 것이다. 그러면 어떤 國내적 要因이 핵심적인 것일까? 이에 대해 「플로스」는 「機能과 資金을 둘러싼 官僚그루우프간의 闘爭形態에 있어서의 國內政治」(domestic politics in the form of bureaucratic group struggle over functions and funds)의 「지배적인 影響」을 강조하고 있다.

그 한 실증적인例로 「플로스」는 1953~54년의 「말렌코프」—「호루시초프」紛爭을 지적하고 있다. 이 紛爭은 『개인적 權力과 資金의 配分의 問題를 둘러싼 관료적 暗鬭가 어떻게 對外政策의 形成의 강력한 底流일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한 例라고 그는 강조하는 것이다.

확실히 「말렌코프」는 重工業보다는 輕工業에 優先順位를 부여한 政策을 밀고 나갔다. 『아직까지 우리는 輕工業과 食品工業을 重工業과 같은 比率로 발전시킬 機會를 갖지 못했다. 이제 우리는 生活水準에 있어서 그리고 人民의 文化水準에 있어서의 신속한 上昇을 확보하기 위해서 모든 方法으로 輕工業의 發展을 촉진시킬 수 있게 되었으며 또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될

다』는 말렌코프의 演說(1953年 8月)은 輕工業 優先政策에 대한 그의 확고한 決意를 말해주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의 이러한 決意는 그로 하여금 東西緊張이 고조되어 蘇聯이 軍事費를 증가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대외적 冒險을 회피하는 政策을 추진하게 하였다.

이에 대조되게 「말렌코프」의 競爭者인 「흐루시초프」는 重工業 優先政策을 선도하였다. 그리고 이를 정당화하기 위해 그는 美國이 蘇聯에 대한 奇襲攻擊을 끊임없이 계획하고 있는 蘇聯의 大敵임을 강조하였다. 그는 이 過程에서 「불가닌」(Nikolai Bulganin)과 「보로실로프」(K.E. Voroshilov)의 支持를 획득할 수 있었다.

美國의 「유럽」政策은 「흐루시초프」에게 유리하게 전개되었다. 西獨을 재무장시켜 北大西洋條約機構에 끌어들이겠다는 美國의 최종적인 決定은 「흐루시초프」와 그 支持者들의 立場을 강화시키기에 충분한 것이었다. 실제에 있어서 美國의 이 決定 직후인 1955年 初 「말렌코프」는 首相職에서 해임되었다.

## 7. 総 合

이상에서 筆者는 蘇聯의 對外政策의 國내적 源泉에 관한 여러 學者들의 論議를 일별했다. 그러면 이들 學者の 論議에 있어서 공통적으로 다뤄지는 것은 무엇일까?

첫째, 이데올로기의 役割에 관한 것이다. 어느 정도의 影響力を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意見의 差異가 있으나, 또는 이데올로기는 對外政策을 마르크시즘—레닌이즘의 用語로 합리화시켜 주는 役割 밖에는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見解도 있으나, 전반적으로 보아 蘇聯 對外政策의 國내적 源泉을 다루는 學者들은 일단 이데올로기의 役割문제를 다루고 있다.

둘째, 政策決定過程에 참여하고 있는 公式機關과 政治엘리트 및 利益그루우프 등의 役割에 관한 論議이다. 이들의 役割에 대해서도 見解는 상반되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보아 蘇聯對外政策의 國내적 源泉을 다루는 學者들은 이들의 役割문제를 다루고 있다.

이에 筆者도 이 두가지 問題를 다음에서 개별적인 章으로 나누어 다뤄 보고자 한다. 우선 이데올로기의 問題를 다루고 다음에 政策決定에의 參與者 및 影響者의 問題에 대해 다루기로 한다.

### III. 蘇聯의 對外政策과 이데올로기

蘇聯의 對外政策에 있어서 이데올로기의 役割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2개의 엇갈리는 見解가 있어 왔다<sup>44)</sup>. 첫째는 共產主義 이데올로기는 다른 考慮들(개인적인 權力・國家利益・帝國主義)에 의해 動機賦與된 行動들의 事後의合理化라는 見解이다. 둘째는 이데올로기가 蘇聯의 指導者들로 하여금 특정한 行爲를 하게 하는 役割을 하거나 또는 「行動指針」의 役割을 한다는 見解이다. 그러나 이밖에 이 兩分圖式을 배격하고 共產主義 이데올로기의 動機賦與的 役割의 問題를 다른 視角에서 접근하는 立場도 있다. 本章에서 는 이러한 見解와 立場들을 살펴보기로 한다.

#### 1. 헌트의 見解<sup>45)</sup>

「헌트」(R.N. Carew Hunt)는 이데올로기가 「權力政治」와 더불어 蘇聯의 對外政策에 중대한 影響을 미치고 있다고 주장한다. 蘇聯의 이데올로기는 蘇聯 指導者들의 思考와 知覺에 影響을 끼치며, 따라서 그들의 行動은 「모든 共產主義者들이 받아들여야 하는 概念들과 原則들에 의해 影響받고 있다」는 것이다. 蘇聯의 指導者들의 世界觀이 「왜곡」되어 있고 또한 그 때문에 西方世界의 指導者들은 그들과의 協商에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그들과의 協商에서 어려움을 겪는 중요한 原因이 바로 蘇聯의 指導者들이 갖고 있는 마르크시스的 信念體系 때문이라고 「헌트」는 보았다. 물론 『政策에 있어서 權力政治와 이데올로기 사이의 정확한 關係의 測定을 허용할 基準尺이 없다』는 점을 그는 시인하고 있다. 그러나 『확실히 그 어느 쪽의 要因도 무시 될 수 없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 2. 폴트의 見解

「폴트」(David Forte) 역시 「헌트」와 같은 立場이다. 그는 『소비에트 이데올로기는 소비에트 對外政策과 긴밀한 關係를 갖고 있으며…기본적으로 민족주의적인 計劃을 옹호하는 단순한 철학적 合理화가 아니다』라고 보고 있

44) "Introduction to Part III: Communist Ideology, Belief Systems, and Soviet Foreign Policy," in Hoffmann and Fleron, *The Conduct of Soviet Foreign Policy*, p. 91.

45) R.N. Carew Hunt, "The Importance of Doctrine," in *ibid.*, pp. 101-108.

는 것이다<sup>46)</sup>.

자신의 見解를 뒷받침하기 위해 그는 「유럽」 經濟共同體의 初期 發展段階에 있어서 이에 대한 蘇聯의 反應을 면밀히 검토했다. 여기서 그는 이데올로기적 前提에 있어서의 變化는 거의 언제나 政策에 있어서의 變化에 앞서고 있음을 발견한 것이다. 이데올로기적인 變化는 『새로운 實體적 政策을 위한 舞臺를 설정하는 것』임을 발견한 것이다. 결론적으로 그는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이미 시작된 政策을 합리화하거나 또는 합법화하는 것이 아니라, 蘇聯의 指導者들과 이데올로기 擔當者(ideologist)들은, 최소한 이 긴요한 爭點에 대해서와 이期間 동안에는, 狀況을 평가하고 새로운 行動進路를 계획하며 政策變化에 앞선 이데올로기적 原則을 재구성함에 있어서 중요한 役割을 수행했던 것이다』<sup>47)</sup>

### 3. 「샤프」의 見解

「샤프」(Samuel L. Sharp)는 蘇聯의 對外政策을 포함한 일체의 政策樹立過程에 있어서의 이데올로기의 役割을 크게 보지 않는 立場이다. 그는 『共產主義 教義의 궁극적 目標가 政策決定에 작용하고 있으며 行動의 指針으로 기능하고 있다』는 통상적인 見解를 부인한다. 그 대신 그는 「國家利益」에 대한 考慮가 蘇聯對外政策의 決定過程에 있어서 핵심적인 要素라고 보는 것이다<sup>48)</sup>. 그는 자신의 主張을 강화하기 위해 「처칠」(Winston Churchill)을 원용하면서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원스턴·처칠」은 蘇聯의 政策은 『수수께끼 안의 神秘로 포장된 수수께끼』(a riddle wrapped in a mystery inside an enigma)라는 유명한 말[을 남긴 바 있다]. …[그러나] 그 처칠도 다음과 같이 덧붙였다. 그러나 아마 열쇠가 있을 것이다. 그 열쇠는 蘇聯의 國家利益이다<sup>49)</sup>.

「샤프」는 蘇聯 對外政策을 이데올로기에 焦點을 두어 분석한 著述들은 대

46) David Forte, "The Response of Soviet Foreign Policy to the Common Market, 1957~63," *Soviet Studies*, XIX, 3 (January, 1968), p. 373. 또한 다음을 참조 하라. Betram D. Wolfe, "Communist Ideology and Soviet Foreign Policy," *Foreign Affairs*, XLI, 1 (October, 1962), pp. 152-170.

47) Forte, "The Response of Soviet Foreign Policy to the Common Market," pp. 373, 386ff.

48) Samuel L. Sharp, "National Interest: Key to Soviet Politics," in Hoffmann and Fleron, *The Conduct of Soviet Foreign Policy*, pp. 108-117.

49) *Ibid.*, p. 109. 強調點은 「샤프」의 것임.

체로 이른바 「의심스러운 引用의 技術」(the doubtful art of quotation)의 바탕 위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한다. 「레닌」과 「스탈린」의 著述이나 演說을 그것이 행해진 時間과 場所 및 狀況 그리고 聽衆의 構成 등에 대해서는 별로 고려하지 않고 부분적으로 인용하여 兩者的 關係를 세워놓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것은 매우 엉성한 一般化와 매우 많은 例外와 矛盾의 草集이어서 그것에서 많은 指針을 발견할 수 있는 讀者는 거의 없다』<sup>50)</sup>고 보고 있는 것이다.

「샤프」는 蘇聯의 對外政策이 「世界革命을 강조한 마르크시즘—레닌이즘」에 의해 影響받고 있다고 주장하는 學者들이 그 證據의 하나로 크게 내세우고 있는 고민테른(Communist International)에 관해 다음과 같이 평가하고 있다.

첫째, 蘇聯이 별다른 外交政策의 道具를 갖고 있지 못했던 初期에 고민테른이 활용되었을 뿐이다.

둘째, 蘇聯은 初期에 자신의 生存을 위협했던 内亂과 外國의 武力干涉 및 經濟混亂을 극복하고 따라서 生存에 대한 自信을 갖게 되자 전통적인 意味에 있어서의 外交政策 機構에 의존하는 度가 훨씬 높아졌다.

세째, 더더구나 「스탈린」時代에는 고민테른이 하나의 작은 보조적 役割밖에는 수행하지 못했다. 고민테른에 대한 그의 態度는 그가 한번도 고민테른大會에서 연설한 적이 없었다는 事實에도 잘 나타나 있다고 하겠다.

네째, 蘇聯外交의 成功과 失敗에 관한 모든 記錄을 종평가할 때, 확실히 그 成功은 蘇聯의 힘과 外交에 起因한 것이지 國際共產主義運動 때문은 아니었다. 더군다나 蘇聯은 자신의 安全과 利益을 위해서는 海外 여러 나라에서의 共產主義 革命運動을 탄압하고 있는 反共保守政權과도 기꺼이 손을 잡았다는 점을 머리에 두어야 할 것이다. 그 가장 대표적인 例로 「아타튀크」(Kemal Ataturk)의 反共 「터키」政府, 「히틀러」(Adolf Hitler)의 極右파 시스트政權과의 提携 및 2次大戰중의 西方世界와의 同盟을 지적할 수 있을

50) 이것은 Marshall Knappen, *An Introduction to American Foreign Policy* (New York: Harper & Bros., 1956) 가운데 “Capabilities, Appeal and Intentions of the Soviet Union,”에서 「샤프」가 인용한 것이다. 원래 Knappen은 「레닌」과 「스탈린」으로부터의 引用을 바탕으로 불세비즘의 性格을 밝히려고 한 Nathan Leites, *A Study of Bolshevism* (Glencoe: Free Press, 1953)을 비판하면서 그러한 表現을 쓴 것이다.

것이다.

다섯째, 다른 나라의 共產黨들에 대한 蘇聯의 呼訴는 어떤 공통적인 類似性에 바탕을 둔 世界의 다른 나라들의 呼訴와 크게 다름이 없다. 예컨대 汎아람主義를 본질적으로 호소하는 「이집트」의 媳動・宣傳活動과 별 差異가 없는 것이다.

이러한 觀察에 바탕을 두고 「샤프」는 마르크시즘—레닌이즘이 蘇聯의 對外政策에 상당히 큰 影響을 미치고 있다는 主張들을 배격하고 있다. 그의 이 結論은 확실히 「겔렌」(Michael Gehlen)의 觀察과<sup>51)</sup> 「집마만」의 觀察<sup>52)</sup>에 일치하는 것이다.

#### 4. 「다니엘즈」의 見解<sup>53)</sup>

「다니엘즈」(Robert V. Daniels) 역시 「샤프」와 마찬가지로 이데올로기 가 蘇聯의 對外政策의 決定過程에 중요한 要因이 아니라고 본다. 이데올로기는 프롤레타리아트의 階級意識을 고양시키는 教育・宣傳의 役割과 歷史發展에 관한 解釋의 役割 및 政策의 事後合理化의 役割을 주로 수행하고 있을 뿐이라는 것이다. 특히 事後合理화의 役割이 커지고 있어서 이데올로기는 점차 「擬似宗教的 性格의 自己正當化的 教義」(a self-justifying dogma of a quasi-religious nature)가 되어가고 있다고 보았다. 이 점에 대해 그는 이렇게 쓰고 있다.

흐루시초프時代에 나타난 공식적 蘇聯의 思考의 歷史는 現代 共產主義 이데올로기의 道具의 性格을 반복적으로 확인해 주고 있다. 教義의 領域에 있어서의 蘇聯의 政策樹立家들의 일차적 關心은 … 있을 수 있는 이론적 禁制의 制限을 받음이 없이 적절한 行動을 취할 수 있는 자유스러운 立場을 유지하겠다는 데 있다. 이데올로기는 外交政策의 事後正當化的 機能을 하고 있는 것이다<sup>54)</sup>.

그런데 「다니엘즈」는 政策의 道具로서의 이데올로기는 蘇聯의 國內政治와 共產主義 共產國家간의 國際關係에 있어서 보다 큰 有用性을 갖고 있다고 보았다. 바꿔 말해, 非共產世界에 대한 蘇聯의 對外政策에서는 그나마 有用

51) Michal Gehlen, *The Politics of Coexistence*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Press, 1967), p. 294.

52) Zimmerman, *Soviet Perspectives on International Relations*, pp. 287-290.

53) Robert V. Daniels, "Doctrine and Foreign Policy," in Hoffmann and Fleron, *The Conduct of Soviet Foreign Policy*, pp. 154-164.

54) Ibid., p. 164.

性이 적다고 본 것이다.

### 5. 「햄머」의 見解<sup>55)</sup>

「햄머」(Darrell P. Hammer)는 기본적으로 蘇聯이 世界革命이라는 이데올로기보다는 國家利益을 항상 앞세우고 外交政策을 결정했다고 보고 있다. 그리고 이를 입증하기 위해 蘇聯의 對外政策의 決定에 있어서 가장 중요했던 4개의 決定을 다음과 같이 살펴 보았다.

#### ① 브레스트—리토브스크條約<sup>56)</sup>

볼셰비키가 1917년 유명한 『平和, 땅, 土地』의 國號를 들고 權力에 올랐다는 事實은 널리 알려진 바 있다. 확실히 「레닌」의 新政府는 獨逸과의 戰爭을 조속히 끝내겠다는 約束을 함으로써 厥戰의 雲霧氣에 사로잡혀 있던 民衆의 마음을 사로 잡을 수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對獨講和條約의 締結은 「레닌」政府가 우선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問題의 하나였던 것이다. 그런데 「레닌」政府가 이 問題를 풀어나가는 過程은 蘇聯이 國際革命보다는 國家利益을 앞세우며 또한 혁명적 外交方式보다는 전통적 外交方式에 의존하는 가장 전형적인 例를 보여주는 것이다.

볼셰비크 指導者들은, 「레닌」과 外相 「트로츠키」를 포함하여, 몇 마디 혁명적 宣言을 발표하는 것으로써 終戰을 이룩할 수 있다고 믿고 있었다. 그들은 「世界의 人民들」에게 平和를 호소하는 것으로써 問題는 충분히 해결될 것으로 생각했던 것이다. 그들 가운데 아무도 그들이 終戰을 이룩하기 위해 「帝國主義의 總本山」獨逸과 協商을 벌여야 한다거나 또는 더더구나 獨逸의 要求에 따라 讓步를 해야 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햄머」는 보았다.

55) Darrell P. Hammer, *U.S.S.R.: The Politics of Oligarchy* (Hinsdale: The Dryden Press, 1974), pp. 388-413.

56) 이 부분에 관해서는 다음의 文獻 역시 참조되었다. Gerhard Schulz, *Revolutionen und Friedensschlüsse, 1917~1920* (Munich: Deutscher Taschenbuch Verlag, 1967), trans. by Marian Jackson, *Revolutions and Peace Treaties, 1917~1920* (London: Methuen & Co., 1972), pp. 88-93; Georg von Rauch, *A History of Soviet Russia*, 3rd rev. ed. (New York: Frederick A. Praeger, 1963), pp. 70-77. 브레스트—리토브스크條約의 全過程을 보기 위해서는 다음을 참조함이 좋다. John W. Wheeler-Bennet, *Brest-Litovsk: The Forgotten Peace, March 1918* (London, 1938) 및 George Kennan, *Russia Leaves War*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56).

이에 따라 「레닌」이 政權을 장악한 다음날인 1917年 11月 8日, 全露소비에트大會는 「平和에 관한 宣言」을 발표했다. 그것은 交戰中인 모든 나라가 戰爭을 중지할 것과 「非併合主義」 平和를 옹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그러나 西歐聯合國들이나 榮譽國 어느 한 쪽의 國家에서도 이에 대한 反應이 없었다. 따라서 그로부터 2週 뒤인 1917年 11月 21일 「레닌」은 戰線의 軍最高司令官에게 獨逸軍과 戰線에서의 終戰을 직접 협상하도록 지시했다. 그러나 그가 이를 거부하자, 「레닌」은 블셰비크 黨員의 젊은 將校로 그를 대체시켰다.

같은 날 「트로츠키」는 西歐國家들에게 平和協商을 제의하는 공식적인 노트를 보냈다. 그런데 이 外交노트는, 햄머의 表現을 빌면, 「흥미있는 文書」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공식적인 外交用語로 표현되어 있었으며, 이 때에 「트로츠키」의 外務省에 근무하고 있는 帝政「러시아」의 官吏의 솜씨임을 말해주는 것이었다. 「혁명적」인 「트로츠키」外務省이 중대한 國家利益이 걸려 있는 狀況에서는 「직업적」 外交官에 의존하고 있음을 이 에피소드는 말해주는 것이었다. 어떻든 西歐聯合國들은 蘇聯政府를 승인하지 않았고 「트로츠키」의 노트를 무시했다. 그러나 東部戰線을 하루 빨리 안정시킨 다음 英國과 「프랑스」에 대한 大攻勢를 펼 計劃이었던 獨逸은 이를 받아들였고, 1917년 12월 15일 獨逸이 점령하고 있는 露領「브레스트—리토브스크」에서 兩國은 向後 4週間 休戰함과 동시에 곧 平和條約締結의 協商에 들어가기로 합의했다.

蘇聯의 協商代表團은 블셰비크 指導者만으로 구성된 것이 아니었다. 勞動者와 船員 및 農民 각각 1명씩을 포함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 세 사람은 그저 겉치레의 存在임이 분명해졌다. 代表團은 모스크바의 「레닌」과 「트로츠키」로부터 직접적 指示를 받아 協商에 임하고 있었던 것이다.

「요페」(A.A. Joffe)가 이끈 蘇聯代表團의 공식적 立場은 全露소비에트大會의 「平和에 관한 宣言」에 바탕을 두고 있었다. 어느 쪽에 의해서도 領土의 併合은 있을 수 없으며 賠償金의 支拂도 있을 수 없는, 이른바 「無併合, 無賠償」의 「民主的 平和」를 내세우고 있었던 것이다. 또한 軍隊의 占領 아래 있는 弱小民族에게는 獨立이 주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던 것이다. 그러나 군사적 優位를 점하고 있으며 따라서 蘇聯의 降伏만이 終戰의 유일한 條件이라고 믿고 있던 獨軍은 이를 거절했다. 獨軍은 「유럽」의 非「러시아」領土

즉 「폴랜드」와 「리투아니아」 및 「폴란드」의 割讓을 강경히 요구한 것이다. 이제 蘇聯은 協商을 깨뜨리고 戰爭을 재개하든가 아니면 獨逸의 要求를 받아들이든가 兩者擇一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대부분의 「볼셰비키」指導者들은 「革命戰爭」을 주장하고 나섰다. 대체로 「左派 共產主義者」 그루우프에 속하는 이들은 「러시아」에 새로 탄생한 社會主義國家가 「帝國主義」에 대항하는 새로운 革命戰爭을 전개하는 경우 「帝國主義」國家의 勞動者들은 이에 발맞춰 일제히 봉기해 自國의 政府에 대항해 싸울 것이라고 기대한 것이다. 바꿔 말해, 그들은 獨逸 「帝國主義」에 대한 蘇聯의 「革命戰爭」은 世界 도처에서의 「反帝革命」을 촉발시키는 起爆劑가 될 것이라고 기대한 것이다.

「트로츠키」는 이러한 期待는 幻想이라고 생각했다. 따라서 「革命戰爭」은 破滅을 준비하는 公式이라고 판단했던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帝國主義者」들과 「併合主義的」 平和를 체결할 수도 없는 일이었다. 여기서 그의 유명한 「非戰非和」(no war, no peace)案이 나왔던 것이다. 즉 蘇聯은 戰爭이 종결되었다는 일방적인 宣言을 발표하고 戰鬪에서 물러나는 한편 어떠한 平和條約에도 서명하지 않는다는 構想을 제시했던 것이다.

「레닌」은 「革命戰爭論」과 「非戰非和」論 兩者를 모두 배격했다. 그는 우선 獨逸에서 社會主義革命이 언제 일어날지 알 수 없는 形便에 「革命戰爭」을 논하는 것 자체가 비현실적이라고 보았다. 그리고 『中間의 길은 불가능하다』는 立場에서 「非戰非和」論을 거부한 것이다. 그대신 그는 蘇聯은 戰爭이 다시 벌어져 더 많은 領土를 빼앗기기 전에 獨逸의 要求條件을 들어주어 終戰을 이룩해야 한다고 보았다.

黨 指導層에서의 비공식적 論爭은 左派 共產主義者 그루우프의 「革命戰爭」論이 약간 우세함을 보여 주었다. 「레닌」의 立場에 대한 支持는 4분의 1 정도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黨指導層은 이 問題를 놓고 분열되어 있었다. 이러한 狀況은 決定權을 갖고 있는 黨 中央委員會의 무의미한妥協案에 곧 반영되었다. 蘇聯代表團은 「브레스트」—「리토브스크」의 協商에 이블로 돌아가야 하지만 獨逸의 要求에 굽복해서는 안된다는 決議案이 바로 그것이다.

1918년 1월 재개된 會談에서 「요페」를 대신한 「트로츠키」는 이 決議案에 따라 遷延戰術을 썼다. 그러자 獨逸은 마침내 2월 9일 「러시아」의 支配에서

벗어나려는 「우크라이나」 獨立運動政府를 승인함과 동시에 平和條約을 맺어 軍糧 공급할 農耕地를 확보한 다음 「러시아」를 破竹之勢로 공격해 들어갔다.

이러한 狀況 속에서 黨 中央委員會와 內閣에서는 격렬한 論爭이 벌어졌다 「부하린」(Nikolai I. Bukharin)을 중심한 左派는 獨逸과의 開戰을 주장했다. 그는 블세비키 政府가 獨逸과 강화하는 것은 「帝國主義者」「빌헬름」2세 (Kaiser Wilhelm II)에게 國內의 프로레타리아 階級을 억제하고 帝國主義 戰爭」을 수행토록 도와주는 것이며, 따라서 그 路線은 革命에 대한 背反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블세비키 政府가 「不名譽와 背信의 生涯」를 갖느니 차라리 패배해서 봉과되는 한이 있어도 「革命戰爭」을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이에 대해 「레닌」은 『우리는 戰爭을 갖고 놓담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그의 立場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獨逸은 革命을 잉태하고만 있을 뿐이며 獨逸에서의 革命은 임박하지 않았다. 제법 건강한 어린아이(=블세비키 政府)가 우리에게 이미 출산되어 있다. 우리가 戰爭을 시작한다면 우리는 이 社會主義共和國을 죽이는 것이다.』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그의 이러한 立場은 協商의 初期부터 확고했던 것이다. 그는 무엇보다 新生 블세비키 政府를 지키는 것이 現在는 물론 未來의 共產主義革命을 위해서도 最善의 方法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이처럼 論爭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進攻을 계속한 獨逸은 1918年 2月 22日, 48時間 안으로 講和條約에 조인할 것을 요구했다. 黨 및 政府 指導者들 사이에는 다시 激論이 벌어졌다. 「레닌」은 『우리는 현재 숨쉴 餘裕를 필요로 하며 혁명적 句節을 弄하는 것은 진짜 革命事業을 망친다』고 주장하면서 자신의 案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黨과 政府에서 사임하겠다고 위협했다. 黨 中央委員會의 票決은 7대 4 (棄權 4), 소비에트中央執行委員會의 票決은 116대 85 (棄權 26)로 「레닌」을 지지했다. 「트로츠키」와 그의 追從者들의 棄權이 「레닌」의 勝利에 큰 도움을 주었던 것이다.(이와 동시에 「트로츠키」는 外相職을 사임했다).

「레닌」路線의 勝利에 따라 「트로츠키」의 後任인 「치체린」(G.V. Chicherin)의 指揮아래 對獨講和條約은 1918年 3月 3日 「브레스트」—「리토브스크」에서 조인되었다. 그러나 「革命戰爭」路線을 주장한 社會革命黨의 左派와 렌세비키는 블세비키를 맹렬히 비판했다. 이 論爭은 벌써 뒷날 「스탈린」과 「트로츠키」 사이에 전개될 「一國社會主義」論(socialism in one country)대

「世界革命」論의 씨를 보여 준 것이었다. 「레닌」은 분명히 「一國社會主義」論을 받아들이고 있었으며, 그것은,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그가 蘇聯의 國家利益을 위해 「世界革命」의 이데올로기를 희생시켰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 점은 「브레스트」—「리토브스크」條約을 옹호한 「레닌」의 다음과 같은 演說에서 분명해진다.

나는 世界革命에의 꿈을 다른 사람들에게 남겨두고자 한다. …당분간 自己紀律을 만들려고 일해 보자. …이것은 童話를 엮어 내는 것보다 좀 더 어렵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오늘날 할 수 있는 일이다.<sup>57)</sup>

## ② 「히틀러」와의 提携

1938年 8月 獨蘇不可侵協定이 체결되자 世界는 깜짝 놀랐다. 이데올로기적으로 물과 기름 같은 關係인 두 나라가 不可侵協定을 맺을 수 있으리라고는 아무도 상상할 수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레닌」에 의해 씨가 뿌려지고 「스탈린」에 의해 싹이 튠 「一國社會主義」論의 논리적 歸結일 뿐 놀라운 일이 아니었던 것이다.

「一國社會主義」論을 전개하면서 「스탈린」은 확실히 蘇聯의 모든 政策에 있어서의 最優先順位는 蘇聯의 國家利益과 國力의 發展에 주어져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世界革命」은 「스탈린」의 優先順位에 있어서 낫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을 뿐이었다.

2次大戰이 일어나기 전까지 「스탈린」의 對外政策의 일차적 目的是 「유럽」에 있어서의 平和의 維持에 있었다. 「유럽」에 平和가 유지되면 될수록 蘇聯은 國內의 社會主義 建設에 몰두할 수 있다고 「스탈린」은 판단했던 것이다.

이러한 判斷에서 「스탈린」은 우선 西歐의 反파시스적 國家들과 제휴해 나갔다. 그는 西歐의 聯合國들이 나치 獨逸의 성장하는 軍事力を 견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던 것이다. 따라서 그는 1930년 「치체린」의 後任이 된 「리트비노프」(Maksim Litvinov) 外相으로 하여금 西歐國家들에 대한 接近政策을 과감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였다. 國際社會의 정상적인 一員으로서 완전한 承認을 추구해 나갔고 1934年에는 國際聯盟에 가입하기까지 하였다. 그뿐만 아니다. 파시즘에 대항하기 위한 西歐 社會民主主義政黨과의 統一戰線을 추구하였고, 1935年의 제 7 차 고민테른大會에서는 世界革命의 廉動을

57) Hammer, U.S.S.R., p. 393에서 다시 인용함.

정지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하였다. 확실히 蘇聯은 西歐와 集團安保條約을 체결함으로써 나치 獨逸의 예상되는 侵略主義를 경제고자 했던 것이다.

이러한 狀況 속에서 「스탈린」을 실망시킨 事件이 일어났다. 1938년의 「문헌」會談이 그것이다. 英國과 「프랑스」가 「히틀러」에게 「체코슬로바키아」의 「즈데텐란트」를 할양해 줌으로써 「히틀러」의 侵略을 여기서 멎추게 했고 이로써 「유럽」의 平和는 보장되었다고 믿고 있는 동안, 「스탈린」은 이들의 有和政策에 대한 不信感과 그리고 蘇聯의 利益이 「문헌」會談에서 무시되었다는 背信感에 젖어 있었다. 그는 蘇聯의 安全과 國家利益의 保護를 위해 새로운 政策으로의 轉換이 필요하다고 느끼기 시작했다.

「즈데텐란트」의 併合에 만족하지 못한 「히틀러」가 「폴랜드」를 위협하기 시작하자 英國과 「프랑스」는 「폴랜드」의 防禦를 위한 蘇聯의 協調를 요청했다. 「스탈린」은 대단히 조심스럽게 協商에 응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宿敵關係에 있는 「폴랜드」도 蘇聯의 「協調」를 달갑게 생각하지 않았으나 「스탈린」 역시 「폴랜드」의 防禦 때문에 蘇聯이 獨逸과의 戰爭에 말려들어가는 事態는 피하고 싶었기 때문에 協商의 展望은 밝지 않았다.

이러한 가운데 1939年 3月 「스탈린」은 뒷날 밤(栗) 演說(chestnut speech)로 알려진 중요한 外交政策 演說을 했다.

「히틀러」에 접근하려는 「스탈린」의 態度는 1939年에 들어서서 분명히 드러나기 시작했다. 그것은 이해 3月에 있은 그의 한 주요 政策演說에서 뚜렷했다. 『우리는 慎重性을 발휘할 것이며, 다른 人民들로 하여금 불 속에서 밤(栗)을 꺼내도록 해온 戰爭挑發者들이 우리를 戰爭으로 끌어넣는 것을 허용치 않을 것』이라는 이른바 「밤 演說」(chestnut speech)이 그것이다. 「히틀러」에 대한 최초의 신중하고 간접적 接近의 表示로 인정되고 있는 이 演說에서 「스탈린」은 英國과 「프랑스」를 『다른 人民들로 하여금 불 속에서 밤을 꺼내도록 해온 戰爭挑發者』로 비유했던 것이다.

「히틀러」에 접근하고자 하는 「스탈린」의 意圖는 「밤演說」로부터 2개월 뒤 「리트비노프」外相의 解任으로 보다 뚜렷해졌다. 「리트비노프」는 우연히도 유대인이 있을 뿐만 아니라 反「히틀러」集團安保體制構築에 앞장 섰던 張本人이었던 것이다. (그의 後任이 바로 몰로토프이다).

「리트비노프」의 解任과 동시에 「스탈린」은 대단히 조심스럽게 그리고 비밀리에 獨逸과의 協商에 들어갔다. 당시 蘇聯은 英國 및 「프랑스」와의 協商

도 중단하지 않고 있었으므로, 蘇聯은 獨逸과의 協商을 개시함으로써 사실상 三面協商에 들어갔던 것이다. 協商의 內容은 간단한 것이었다. 英國과 「프랑스」는 蘇聯과의 反獨 軍事同盟을 요구하는 것이었고, 獨逸은 蘇聯이 戰爭에의 不介入을 요구하는 것이었다. 여기서 「스탈린」이 택한 것은 물론 獨逸의 要求에 응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代價로 그는 秘密議定書를 통해 東歐에 대한 蘇聯의 勢力圈을 「히틀러」로부터 보장 받았던 것이다(이 密約을 「라팔로」密約이라고 한다). 이상이 바로 1939年 8月 世界를 경악시킨 獨・蘇不可侵條約이 체결된 背景인 것이다.

獨逸과의 不可侵協定 締結은 外國의 共產主義者들로부터의 맹렬한 反撥을 불러일으켰다. 그들은 그 條約을 革命에의 背反이라고 보았던 것이다. 이 때문에 共產主義運動으로부터의 離脫者들도 적지 않게 발생했다.

外國에서의 反撥에 비해 國內에서의 反撥은 없는 셈이었다. 1930年代에 大肅清을 念頭에 둘 때, 그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었다. 問題의 條約이 체결된 1939年까지 스탈린에 도전할 만한 人物들은 거의 모두 숙청되었던 것이다. 이 肅清이 없었다면, 「히틀러」와의 提携는 틀림없이 黨內의 커다란 理論鬪爭을 불러일으켰을 것이며 어쩌면 그 때문에 불가능했을 것이다. 그러나 「레닌」時代의 모든 頂上級指導者가 처형된 상황 속에서 「스탈린」은 자신이 蘇聯의 國家利益에 합당하다고 본 바대로 아무런 抵抗을 받음이 없이 蘇聯을 이끌어 나갈 수 있었던 것이다.

「히틀러」와의 提携를 통해 「스탈린」은 확실히 헐값으로 空間과 時間을 동시에 사들였다. 우선 空間에 있어서 「스탈린」은 「히틀러」가 눈감아 주고 있고 또한 英國과 「프랑스」가 「히틀러」와의 戰爭으로 어찌지 못하고 있는 틈을 타서 「러시아」가 1차 大戰 이후 잊었던 領土의 거의 全部를 되찾았다. 「히틀러」가 「폴란드」를 공격하자 「스탈린」은 危機에 빠진 이 悲運의 나라의 東部를 공략하여 이를 명탐하는 데 성공했고, 「발티」國과 「베嘶라비아」를 위협하여 이들을 각각 「에스토니아」 소비에트共和國과 「라트비아」 소비에트共和國 및 「리투아니아」 소비에트共和國 그리고 「몰다비아」 소비에트共和國으로 바꾸어 蘇聯에 편입시켰으며, 다시 몇 週間의 戰爭 끝에 「핀란드」를 굳복시켜 그 領土의 一部를 빼앗았던 것이다. 그리고 時間에 있어서 「스탈린」은 그 條約이 깨어질 때까지 약 22個月을 「유럽」의 主要國家들이 개입된 戰爭에서 벗어나 있을 수 있었다.

「스탈린」은 확실히 「히틀러」가 不可侵條約을 준수할 것으로 믿고 있었다. 따라서 1941年 6月 22日 獨逸의 侵攻이 시작되었을 때 戰爭에 대한 準備가 충실하지 못했던 蘇聯은 밀리지 않을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中國에는 聯合國과의 提携을 통해 獨逸軍을 패퇴시킬 수 있었고, 戰時中の 聯合國 首腦會談을 통해 東歐에 대한 蘇聯의 支配를 보장 받을 수 있었다.

전체적으로 보아 獨逸과의 不可侵條約은 蘇聯이 國際革命보다도 자신의 安全과 「리시아」의 전통적인 國家利益을 중시한다는 것을 보여준 중요한 한例라고 하겠다. 그 條約은 또한 「혁명적인」蘇聯이 「전통적인」權力政治의 競技와 그리고 「전통적」國際政治의 주요한 테마인 이른바 勢力圈의 問題를 언제라도 다룰 準備가 되어 있음을 보여준 중요한 한例였던 것이다.

### ③ 「쿠바」 미사일事件

「흐루시초프」의 執權期에 蘇聯은 2개의 주요한 國際危機를 경험하였으니, 1956年 東歐의 反蘇蜂起와 1962年 「쿠바」 미사일 事件이 바로 그것이다. 그 가운데 물론 後者가 훨씬 더 심각한 것이었다. 그것은 核戰爭의 危機를 안고 있었던 것이다.

1962年 여름부터 蘇聯은 核彈頭가 달린 中距離 미사일을 「쿠바」에 보내기 시작했다. 蘇聯側의 解明에 따르면—蘇聯은 美國의 偵察機가 「쿠바」에서 「미사일」基地가 건설되고 있는 것을 발견한 뒤 解明을 하지 않으면 안되었다—「쿠바」에 대한 美國의 攻擊으로부터 「쿠바」를 보호하기 위해 「방어적 武器」를 제공하고자 했다는 것이다. 확실히 「쿠바」에 대한 攻擊의 危險은 실재하고 있었다. 1961年 美國 中央情報部의 적첩적 支援아래 反「카스트로」(Fidel Castro) 「쿠바」亡命軍은 「카스트로」政權을 탄도하기 위해 「쿠바」의 「피그」灣에 상륙했었던 것이다. 물론 이 作戰은 실패했으며 이로써 「케네디」(John F. Kennedy) 美行政府의 名聲과 威信은 크게 떨어졌다. 그러나 蘇聯으로서는 「쿠바」에 대한 美國으로부터의 세로운 攻擊의 可能性을 배제 할 수 없는 狀況이었다.

그렇다고 해도 核武器를 「쿠바」에 공급하기로 한 「흐루시초프」의 決定은 대단히 위험스럽고 모험적인 것이었다. 核武器의 供給이 끝나고 미사일 基地의 設置가 완료된다면, 그것은 美國의 安全에 직접적이며 중대한 威脅으로 등장하는 것이며 그 威脅을 美國이 결코 받아들이지 않을 것은 확실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케네디」大統領은 1962年 10月 22日 「쿠바」에 대한 海上封鎖 (그는 이것을 「隔離」라고 불렀다)를 발표하고 蘇聯에게 미사일의 撤去를 단호히 요구했다. 그의 發表文에는 만일 美國의 要求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 美國은 「쿠바」에 대한 적접적 攻擊을 포함하여 더욱 강력한 措處를 취할 用意가 있다는 뜻이 충분히 비쳐져 있었다. 이에 「흐루시초프」는 결국 미사일을 포함한 모든 攻擊武器들을 철거하지 않을 수 밖에 없었다.

이 「쿠바」危機에 관련된 蘇聯의 對外行態를 분석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2개의 質問이 우선 제기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왜 「흐루시초프」는 「쿠바」에 核미사일을 보내고자 했던가? 둘째, 왜 그는 「굴복」하기로 결정했는가? 다음에서 그 解答을 찾아보기로 한다.

확실히 「흐루시초프」는 그가 「쿠바」에 核미사일을 제공하기로 결정했을 때 美國이 취할 對應措處를 크게 過小評價했다. 아마도 그는 모든 일이 비밀리에 끝날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는지 모른다. 그는 또한 자신의 計劃이 성공하는 경우 그것이 蘇聯에게 가져다 줄 군사적・외교적 優位의 誘惑에 밀려들었는지 모른다. 만일 그의 計劃이 성공하기만 한다면, 核力의 均衡이 蘇聯의 상당한 優位로 기우는 것은 확실한 일이었다. 설령 核미사일이 철거된다 해도 그것에 美國으로부터의 어떤 讓步와의 交換 위에서 이뤄진다면 그것만으로도 「흐루시초프」에게는 상당한 外교적 成功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나 「흐루시초프」의 쿠바計劃은 상당한 冒險을 수반하는 것이었다. 蘇聯이 「잘못된 場所에서 잘못된 戰爭」에 개입될 危險性을 그 計劃은 안고 있었던 것이다. 「카리비안」海域에서의 재래식 戰爭의 勝敗는 海軍力에 달려 있는 것인데, 이 地域에서 美國은 蘇聯을 압도하는 優位를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만일 그 戰爭이 核戰爭으로 확대되는 경우, 「흐루시초프」는 우선 國내로부터의 강력한 反對에 부딪혔을 것이기 때문이다. 1962年 4月 蘇聯 미사일부隊의 司令官 「모스칼렌코」元帥(Marshal K.S. Moskalenko)가 아무런 說明없이 그리고 새로운 補職없이 해임되었다가 「쿠바」危機가 가라앉은 뒤 國防次官으로 임명된 바 있는데, 이것은 확실히 軍部안에 「쿠바」의 冒險을 지지하지 않은 劢力이 있었음을 말해주는 한 例이었다. 「쿠바」危機를 美國과의 核戰으로까지 확대시키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이제 두번째 質問, 즉 「흐루시초프」가 왜 「굴복」하기로 결정했는지에 대